珍珠塔

巻之五

共十

部	
類	小説[illegible]
番號	
冊數	
備考	

160
15
10-5

FULL SIZE
A5
B5
A4
B4
A3

진쥬탑젼지오

뎍기 (기녀를ᄒᆞ 쥬미라)

텰승이 망경의 ᄭᅩ친을 위ᄒᆞ여 망셔치 ᄭᅳᆺᄒᆞᆫ 골
뵬괼쥬을 챠뎡ᄒᆞ여 삼뵉냥은 주ᄅᆞᆯ 가지고 가셔
망부인 거드리라 ᄒᆞ엿더니 뇌져의 다른 꾀쥬을
니여다라 날ᄌᆞᆯ 아라셔 리오 만일 졍경의 일ᄂᆞ
의론ᄒᆞᆯ진ᄃᆡ 셰쥬 연망ᄃᆡ야 외쳔만 번복락ᄒᆞ
글셩각ᄒᆞᆯ지 톄치 아냐 급히 갈거시ᄅᆞ리다만
뵬쥬이 본릐 꾀쥬이 당졍치 ᄭᅳᆺᄒᆞ여 망당이오

날ᄀᆞᆯ 조하ᄒᆞ여 ᄒᆞᆼ일 못허다라나 ᄭᆞᆯ 싱각ᄒᆞ
디ᄒᆞᆫ 싱은 젼이 업ᄉᆞ ᄭᆞᆯ ᄌᆞᆼ치 ᄭᆞᆺᄒᆞ여 니ᄌᆞᆺ실의
삼ᄀᆡ 빅셥 랑은 조ᄅᆞᆯ ᄉᆞᆨᄌᆞᆼ의 ᄀᆞ져 시ᄭᆡ 졍히 거회
ᄅᆞᆯ 맏나 ᄀᆞ희 ᄭᆞᆺ슈 더ᄅᆞᆯ 망당ᄒᆞᆫ 일을 ᄒᆞᆼᄒᆞᆯ 거서
오ᄒᆞᆫ ᄭᆞᆯ며 ᄎᆞᆺ실 졍히 ᄋᆞᆼᄒᆞᆫ 현ᄒᆡ라 ᄌᆞᆨᄀᆞᆨ 조홍
ᄒᆞᆫ 붕비 졉구ᄒᆞ여 거리 우헌 ᄂᆞᆫ을 시ᄅᆞᆺ이 롱녹
ᄅᆞᆯ 알외ᄂᆞᆫ ᄀᆞᆯᄅᆞᆯ 왕리 ᄒᆞ며 화ᄅᆞᆨ ᄌᆞᆨ각의 ᄎᆞᆫ셕을
희롱ᄒᆞ여 져 산간을 의지ᄒᆞ여 화ᄌᆞᆨᄅᆞᆯ 완상
ᄒᆞᄂᆞᆫ지라 팔ᄌᆞᆺ이 연ᄌᆞ 약간의 졍히ᄒᆞᆫ 강을 만

나ᄀᆞᆺ슐이 망당ᄒᆞ여 ᄌᆞᆨ인 라ᄋᆞ야 의복탁을 이ᄋᆞᆯ
날ᄯᆞ라 방ᄎᆞᆯ 도리 간을 단니며 쥬시하 낭의가
ᄭᆞᆯ 싱각지 아니 허니 일일은 강셔구 강부 셕희니
ᄅᆞᆯ허 ᄒᆞᆫ ᄂᆞᆯ이 ᄂᆞᆯ지라 한 ᄎᆞᆺ 잡화 ᄌᆞᆨ리의 니ᄅᆞᆯ러 ᄌᆞᆨ
인이 ᄂᆞᆨᄎᆞᆨᄒᆞᆫ 쥭젹이 어ᄯᅴ 이ᄉᆞ냐 ᄭᆞᆯ니 ᄌᆞᆨ리
ᄌᆞᆨ인이 디답ᄒᆞ되 ᄃᆞᆼ편을 향ᄒᆞ여 ᄃᆞ어 ᄭᆞᄅᆞᆼ이
ᄅᆞᆯ 지ᄂᆞ면 그 ᄀᆞ의 장ᄎᆞᆨ이의 직젹이 잇셔 외곽을
머ᄭᆞᆯ너 허ᄅᆞᆯ셕 게ᄒᆞ니라 팔ᄌᆞᆺ이 ᄌᆞᆨ리 ᄌᆞᆨ인을
직별ᄒᆞᆫ 그ᄂᆞᆫ 졍ᄃᆡᄅᆞᆯ ᄀᆞ니라 연 장ᄎᆞᆨ이 식 젹이 이

이ᄅᆞᆯ지라 져ᄌᆡ ᄒᆡ 인조ᄒᆞ여 안ᄒᆞᆯ 드러가 조흔 망을
갈희여 혈식세 ᄒᆞ거ᄂᆞᆯ 망 젼 다만 젼을 구ᄒᆞ니ᄭᅵ
일홍계 ᄒᆞ여 은ᄌᆞ 녹젼이라 ᄒᆞᄌᆞ지라 필ᄌᆞ이니
국ᄎᆡ 이러ᄒᆞᆯ 신ᄃᆡᄉᆡᄅᆞᆯ 혀어 곳의 셔ᄎᆞ 일을 조ᄒᆞᆯ
나니 여ᄅᆞᆯ 끝져 십ᄉᆡᆼ은 ᄌᆞᄅᆞᆯ 가질가 라 ᄎᆞᆨᄒᆞᆨ 쓰다 혯ᄉᆞ
ᄒᆞ리라 져ᄌᆡ ᄒᆡ 납응 ᄒᆞ며 ᄂᆞᄅᆞᄒᆡ 장인어 여ᄋᆡ의 셕만을
먹어ᄂᆞ냐 필ᄌᆞ이 ᄂᆞᄅᆞ히 이곳의 그ᄅᆞᆯ 쟝등 조흔 ᄌᆞᆯ
이 잇셔 든가져오라 졉ᄌᆡ ᄂᆞᆯ리 장인은 졍 권ᄒᆡ 안
ᄌᆞ라 내가 셔 가져오리라 ᄒᆞᆯ 한 봉은 ᄌᆞᄅᆞᆯ 주습ᄒᆞ

며 총ᄋᆞ 히 맛ᄌᆞᆯ나가 조흔 술을 다 안ᄌᆞᄅᆞᆯ 가지고 오셔
날 필ᄌᆞ이 심ᄌᆞᆼ의 환희 ᄒᆞ여 먹다가 ᄎᆞ졍 ᄒᆞᄋᆡ
독시ᄅᆞᆯ 여ᄂᆞ 희 쳐ᄉᆡ ᄒᆞ더니 익일의 태양이 놉히오
국ᄌᆡ의 면의 혀다 ᄒᆞᄂᆞᆫ 인 이 문잡 ᄒᆞ거ᄂᆞᆯ 필ᄌᆞ이
ᄌᆞ세 ᄒᆞᆯ 차ᄅᆞᆯ 만션ᄒᆞ의 의복을 졍제 ᄒᆞᆫ 져ᄌᆡ ᄌᆞ
ᄅᆞᆯ 부르ᄒᆡ 져ᄌᆡ ᄂᆞᄅᆞᄒᆡ 장인은 그ᄅᆞᆯ 일ᄋᆞᆫ ᄂᆞᆯ 필
ᄌᆞ이 ᄂᆞᄅᆞᄒᆡ 너의 곳의 글 조흔 누리 쳐 ᄎᆡ 이 잇거든
밀ᄒᆞ여 날노 ᄒᆞ여 ᄌᆞ 도세 ᄒᆞ라 져ᄌᆡ ᄂᆞᄅᆞᄒᆡ 장인
아 네 이곳의 노리 쳐 ᄎᆞᄅᆞᆯ 그ᄅᆞᆯ 진ᄅᆡ 데 일은 셩 황

꾀가 쟝열오ᄒᆞᄂᆞ라 필굴이 ᄂᆞᆯ희 ᄌᆞ지 못ᄒᆞ도다
져ᄌᆡ ᄒᆡ ᄂᆞᆯ희 이것들 진리 ᄃᆡ왕 ᄭᅩᆨ안의 량지 셜법
ᄒᆞᆯ 마당이 이서 ᄂᆞ가 ᄡᅣ 셜법ᄒᆞᆯ 거ᄉᆞᆯ 드ᄅᆞ미 ᄉᆞ
ᄒᆞ외라 필굴이 ᄂᆞᆯ희 ᄒᆡ미 업ᄉᆞ니 져ᄌᆡ ᄒᆡ ᄂᆞᆯ희
이것들 진리 텬명ᄉᆞ 록의 명양텬을 구경ᄒᆞᆯᄉᆞ
국영의 즁희 동경을 구경ᄒᆞ라 필굴이 ᄂᆞᆯ더
이로 ᄶᅩ ᄒᆞᆯ쏘ᄌᆡ의 ᄆᆡᆺ지 못ᄒᆞ고나 져ᄌᆡ ᄒᆡ ᄂᆞᆯ희 잘인
의 깃ᄌᆡ의 ᄆᆡᆺᄂᆞᆫ 거ᄉᆞᆯ ᄒᆡ ᄒᆞ려 ᄒᆞᆯ 신리 홍찌 간ᄉᆞᆨ의
라 ᄭᅳᆫ을 여ᄉᆞ 보ᄂᆞᆫ 이의 셔 나은 거서 업ᄉᆞ니라 필굴이

ᄂᆞᆯ희 자부의 집이 ᄭᅳᆫ홍ᄒᆡ 이서러오 져ᄌᆡ ᄒᆡ ᄂᆞᆯ
희 네 라ᄭᅳᆫ을 엿보나 ᄒᆞᆷ을 졍히 어지 못ᄒᆞᄂᆞ 잘언
은 오희 외입ᄒᆞᆯ 신ᄅᆞᆯ 거지어ᄂᆞ ᄒᆞ나 필굴이 ᄂᆞᆯ희
가 ᄀᆞᆨ치 ᄭᅳᆯ 졍ᄒᆞᄂᆞ니 어ᄂᆞᆯ ᄭᅳᆯ 밀이ᄂᆞᆯ 져ᄌᆡ ᄒᆡ ᄂᆞᆯ희
오속은 ᄌᆞᄅᆞᆯ 만히 ᄲᅮᆯ 년 ᄎᆞ ᄒᆞᆯ 녀상을 ᄭᅡᆨ가 히 ᄒᆞ면
외입ᄒᆞᄂᆞ 날 롯ᄉᆞᆯ ᄂᆞ 만 가셔 환낙ᄒᆞᆯ만 ᄒᆡ ᄒᆞ면어
ᄂᆞᆺ 그 라 ᄭᅳᆫ을 엿보미 니라 필굴이 ᄂᆞᆯ희 ᄒᆞᆼ찌 간
ᄉᆞᆨ의 몃 ᄀᆡ 녀상이 이ᄉᆞᆫ고 져ᄌᆡ ᄒᆡ ᄂᆞᆯ희 일ᄀᆡᆯ 옥양
ᄉᆞᆼ 현녀인 이오 일ᄀᆡᆯ 구 셕 ᄉᆡ 녀인 이니 ᄭᅮᆷ나 옥명

ᄒᆞᆯ기예라 간인이 가려 ᄒᆞᆯ진ᄃᆡ 가셔 보라 필귀
이ᄂᆞᆯ ᄃᆡ 나ᄂᆞᆯ 셕세게 ᄀᆞᄋᆡ 의업을 ᄒᆞ려 ᄒᆞ면 연
마ᄂᆞᆫ 주ᄅᆞᆯ ᄲᅳᄅᆞ 녹져ᄒᆡ ᄂᆞᆯᄃᆡ 두ᄅᆞ셔 일야의 십량
은 주ᄅᆞᆯ 주길 먹을 유셕은 서ᄅᆞᆯ 혜ᄋᆞ ᄒᆞᄂᆞ ᄒᆞᄂᆞ니라 필
귀이 두ᄅᆞ셔 죵의 셩각ᄒᆞᄃᆡ 한번 져미ᄅᆞᆯ ᄒᆡ ᄒᆞᆫ
키라 ᄒᆞᆫ 져ᄂᆡ 주ᄀᆞ다려 ᄭᅮᄅᆞᆯ ᄃᆡ ᄒᆞᆫᄭᅴ 간이 어ᄋᆡ 곳의 잇
노ᄅᆞ 져ᄂᆡ ᄒᆡ ᄂᆞᆯᄃᆡ 간인은 명빅히 두ᄅᆞ라 이 곳의셔
셔ᄒᆞᆯ 향ᄒᆞ여 몃 구븨ᄅᆞᆯ 지나 녹ᄂᆞᆫ 조ᄅᆞᆯ 건너야
ᄒᆞᆷ 구븨 거 키ᄅᆞᆯ 나가 ᄎᆞ례ᄅᆞᆯ 열쳐 집 낚 향ᄒᆞᆯ 흔

이오 져의 집 건너편의 ᄃᆡ 국도ᄅᆞᆯ 그려 붓친 거시
ᄯᅩ 져기 되ᄂᆞ니 명셕ᄒᆞ여 ᄎᆞᄌᆞ면 ᄒᆞᆫᄭᅴ 간을 가
히 알지라 ᄆᆞᆺ일 상ᄅᆡ히 ᄒᆞᆫ번 ᄃᆞ녀오려 ᄒᆞᆯ진ᄃᆡ
주ᄒᆞᄅᆞᆯ ᄎᆞᆯᄅᆞᆯ 단비 ᄒᆞᆯ ᄂᆞ일ᄅᆞ면 십 량은 져ᄋᆡᆨ
녁지 ᄭᅳᆺᄒᆞ리라 필귀이 우ᄅᆞ며 이ᄅᆞᄃᆡ 내 가셔 한
번 ᄂᆞ일ᄅᆞ니라 져ᄂᆡ ᄒᆡ ᄂᆞ가 거ᄅᆞᆯ 필귀이 ᄉᆞᄅᆞᆯ 셩각
ᄒᆞ되 내 일즉 이곳 흔 풍속의 일을 힝치 못ᄒᆞᆫ
여 ᄉᆡ이 귀 일 가셔 ᄎᆞ 칭ᄒᆞᆯ 거시ᄅᆞᆯ ᄃᆡ 만일 창가
의 가려 ᄒᆞᆯ진ᄃᆡ 만ᄃᆞ시 뫼릉이 눕ᄒᆞᆫ 긔셰 현

앙ᄒᆞ여야 가히 ᄭᅢ욕치ᄅᆞᆯ 힝낙ᄒᆞ리니 ᄂᆡ 이졔 이
곳ᄒᆞ의 복을 닙ᄂᆞᆫ가 면ᄭᅮ양이 업ᄉᆞᆯ지라 만ᄌᆞ서
한벌 ᄭᅩᆺᄒᆞ의 건을 ᄉᆞ셔 ᄠᅵᆨ구와 닙어 쳔리ᄭᅮ양을
ᄒᆞ면 ᄌᆞ연 ᄂᆡᄅᆞᆯ ᄂᆞᆫ 면ᄒᆞᆯ 셰ᄅᆞᆯ이 업ᄂᆞᆫ 녀ᄉᆞᆼ ᄌᆞᄂᆡᄅᆞᆯ
불레ᄅᆞᆯ치 졉ᄒᆞ리라 ᄒᆞ며 은ᄌᆞ면 ᄉᆞᆼ을 ᄂᆡ여 ᄉᆞ
끼의 너고망 ᄀᆞᆫ을 ᄶᅡ은 후의 의변을 ᄂᆞ와 졀ᄎᆞ
ᄅᆞᆫ 불어 ᄂᆡᄅᆞᆯ치ᄉᆡ 이졔 어ᄅᆞᆯ 더브러 ᄉᆡᆼ각ᄒᆞᆯ 말이
잇ᄂᆞ라 졀ᄎᆞ치 ᄂᆡᄅᆞᆯ치 ᄭᅳᆯ 말이오 필ᄎᆞ이 ᄂᆡᄅᆞᆯ치 형
건치어ᄅᆞᆯ ᄂᆞ의 ᄆᆡᆼ목을 ᄀᆞᆺ쵸ᄒᆞ여 보ᄅᆞᆯ지라 졀ᄎᆞ치

ᄂᆡᄅᆞᆯ치 ᄀᆞᆫ인은 어진 말ᄉᆞᆷ이 노ᄌᆞ져의 왕리ᄒᆞᆫ
쳔 만인의 ᄆᆡᆼ욕을 ᄂᆡᄭᅮ다 보ᄅᆞᆯ지디 한번 ᄌᆞ고ᄅᆞᆯ ᄒᆞ
미 어ᄇᆞᆯ지라 구러ᄭᅩᆯᄂᆞ 쟝ᄉᆞᆷ이의 직졀이 크게 옥
명ᄒᆞᄂᆡ라 필ᄎᆞ이 ᄂᆡᄅᆞᆯ치 ᄌᆞ로다 ᄂᆡ의 져의 ᄭᅩᆺ
ᄂᆞ가오리라 졀ᄎᆞ치 ᄂᆡᄅᆞᆯ치 이곳 ᄐᆞᆯ진치 맙을 ᄀᆞᆺ서
ᄅᆞ가라 필ᄎᆞ이 ᄂᆡᄅᆞᆯ치 ᄃᆞᆫ녀와 멍우리라 ᄒᆞᆫ 히、
양、ᄒᆞ여 큰거리ᄅᆞᆯ ᄂᆞ가 일ᄉᆞ시의 복ᄌᆞ리ᄅᆞᆯ ᄒᆞᄌᆞ
가 한벌 힝쳥 ᄇᆡᆺ ᄃᆞᆼ삼을 ᄎᆞᆯ셕망건 라혜 말을
ᄉᆞ셔ᄌᆞ지ᄅᆞᆫ 직졀의 ᄃᆞ라와 맙을 먹은 후의 청원

복덕을ᄒᆞ며ᄉᆞᄭᅵ측의이십낭은죡ᄒᆞᆫ셔ᄒᆞ며
ᄉᆞᆯ을ᄉᆡᆼ각ᄒᆞ리이은ᄯᅡᆫ가지면ᄡᅡᆺᄒᆞ녁,ᄒᆡᄲᅳ리
라ᄒᆞᆯ의간을ᄂᆞ오니져ᄭᅴ미,ᄒᆡ우ᄂᆞ며ᄂᆞᆯ리간
인은ᄭᅮᆯ복덕을ᄡᅳ며ᄂᆞ노필ᄌᆞ에나ᄂᆞᆯ리젹ᄌᆞᆨ
야너ᄂᆞᆯ오리ᄒᆞᆯ말을ᄆᆞᆯ나내가셔ᄌᆞᆨᄂᆞᆫ을ᄌᆞ서ᄒᆞ
려ᄒᆞᄭᅵ만ᄌᆞ서ᄃᆡ면이ᄂᆞᆯ복덕을ᄒᆞ미ᄂᆞᆯ라ᄒᆞᆯ방
글을ᄡᅥᄂᆞᆯ며나ᄂᆞᆯ리청컨ᄃᆡ너ᄂᆞᆫ보ᄂᆞᆯ지라내ᄀᆞᆺ다
가우리라져ᄭᅴ나ᄂᆞᆯ리방셥ᄒᆞᆯ가라어서의션ᄎᆞ
ᄒᆞᆯ육당ᄒᆞᆯ일리ᄂᆞ복이형원복덕을ᄆᆞᆺ구의입

ᄀᆞ의편을ᄂᆞ와ᄒᆞᆫ증,이ᄒᆡᆼᄒᆞ며ᄂᆞ졍을ᄉᆡᆼ각ᄒᆞ
여아홉구ᄇᆡ거리ᄅᆞᆯ지나ᄎᆞ례로열셔집을ᄎᆞᆺ
가ᄇᆞᆯ나ᄌᆞ연마ᄀᆞᆯ뼉의ᄃᆡ국ᄌᆞᆨᄅᆞᆯ거러ᄂᆞ지라혜아
리ᄭᅴ이ᄂᆞᆯᄀᆞᆺᄒᆞᆫᄭᅵ간이나ᄌᆞ연일ᄂᆞ리청ᄂᆞᆺᄌᆞ다ᄒᆞ
며ᄃᆞ러가려ᄒᆞ니놉허일ᄂᆞ오이집은ᄀᆞᆺ일ᄂᆞ셔ᄒᆞᆫ학
ᄒᆞᆯ션ᄉᆡᆼ의집이라원ᄅᆡ필ᄌᆞ에일ᄂᆞ의ᄎᆞ례
ᄅᆞᆯ열셔집을ᄀᆞ르ᄎᆡ혜지아냐서ᄅᆡ다만ᄌᆞ니ᄭᅳ아
올혜여ᄉᆞᆯ문마ᄀᆞᆯ편의ᄃᆡ국ᄌᆞᆯ일ᄂᆞᆯ길게ᄲᅡᆺ
ᄒᆞᆫ당의그려거려서ᄭᅴ션ᄉᆡᆼ의집라ᄒᆞᆫᄭᅵ간듯

집끗을 ᄭᅳ다 ᄃᆡ ᄒᆞ여 서러 실노 그ᄃᆡ 수ᄃᆡ 정히 홍
ᄭᅵ란 끗을 ᄃᆡ ᄒᆞ여 거ᄂᆞᆯ 필국이 격벽 집을 그ᄅᆞᆺ
홍ᄭᅵ란 ᄋᆞ을 얏ᄂᆞᆯ 미굴 드러 가니 다만 보셔 칠팔 리
ᄋᆞ 중이 그곳의셔 굴서ᄅᆞᆯ ᄲᅡ거ᄂᆞᆯ 필국이 니ᄅᆞ되
적은 ᄌᆞ망군이 ᄌᆞᄅᆞᆯ 혀만 ᄒᆞ다 ᄒᆞ며 셔보ᄭᅵ 중간의
일ᄉᆡ 빅ᄎᆞ 노인이 안ᄌᆞ 굴을 보거ᄂᆞᆯ 필국이 니ᄅᆞ되
ᄂᆞ희은 ᄌᆞ망군이 ᄌᆞᄅᆞᆯ 혀 거만ᄒᆞ니 의엽ᄒᆞᆫ 긔구을
불셔 ᄒᆞᆯ 거ᄉᆞᆫ치 아니ᄒᆞᆯ ᄌᆞ다 ᄒᆞᆯ 중어리며 드러
가니 ᄭᅳᆫ든 우중이 불ᄭᅳ다의 셕ᄒᆞ며 션싱이 ᄃᆞᆯ븐

리ᄯᅵ 말ᄒᆞ여 니러나 ᄉᆞ지ᄌᆞ며 니ᄅᆞ되 어ᄂᆞᆯ 어던 사
ᄅᆞᆷ이완ᄃᆡ 이곳지 망녕ᄒᆞᆫ고 필국이 니ᄅᆞ되 ᄂᆞ희은
ᄌᆞ망군은 ᄃᆡ면 이ᄂᆞᆯ 줄 ᄒᆞᆫ 지국을 보면 ᄉᆡᆼ니 랑치
녀ᄉᆞᆼ을 블너 ᄂᆞᆯ게 ᄒᆞ라 션싱이 니ᄅᆞ되 지곳
ᄒᆞᆫ ᄂᆞᆷ아 필연 ᄂᆡ가 헤ᄋᆞᆺ거ᄂᆞᆯ 보ᄂᆞ다 ᄭᅳᆫ든 ᄭᅳᆫ셩은
ᄌᆞ녀ᄅᆞᆯ ᄭᅳ어 업지ᄅᆞᆯ 드다리라 이곳든 즁셩ᄂᆞᆷ을
라가 의보시여 여위치 ᄒᆞ리라 필국이 니ᄅᆞ되 셩
악ᄒᆞᆫ ᄌᆞ망군아 의엽ᄒᆞᆫ 국을 치면 죄가 잇ᄂᆞ
니라 그 칠팔 리 ᄭᅳᆫ셩이 션싱의 말을 ᄃᆞᆮ고 셩

답응ᄒᆞ며 별의 쎄 ᄀᆞ지와 셔찰쥬을 쏘어 며
ᄎᆞᆯ치며 션ᄉᆡᆼ은 큰노ᄒᆞ여 악셕이 롱롱ᄒᆞ며
ᄎᆞᆨ롱의 일ᄉᆡ 계 ᄎᆡᆨ을 가질ᄒᆞᆨ 그치 거ᄌᆞᆯ 절쥬
이그너 졔 ᄒᆞᆼ 헙ᄒᆞᆯᄇᆞᆯ 갓선이 달션ᄒᆞ여 ᄂᆞᆯ
ᄃᆞ시 끈을ᄂᆞ와 난니 셜쥬의게 ᄉᆞ졍을 ᄒᆞᆼ치ᄀᆞᆯ
망군이 ᄀᆞᆨ단히 ᄒᆡᆼ악ᄒᆞ다 ᄒᆞ니 ᄒᆞᆼ인이 동을
며 나ᄀᆞᆯ리 네 ᄉᆞᄀᆞᆯ 그른 일을 ᄒᆡᆼᄒᆞ여서 너 져의 졉
은 ᄒᆞᆼ끠 간이 아니오 ᄎᆞᆺ ᄒᆞᆫ 학 션ᄉᆡᆼ 시ᄉᆔ 옥동의 졉
이 어ᄂᆞᆯ 예 그 션ᄉᆡᆼ을 ᄌᆞ 망군이 ᄋᆞᆯ을 부ᄅᆞ미 막당

ᄎᆡ 아니ᄒᆞ다 어지 션ᄉᆡᆼ의 노리ᄒᆞᆫ 련ᄒᆞᆯ ᄀᆞ어히
너 기리오 ᄑᆞᆯ쥬이 너ᄅᆞ리 ᄋᆡ야 이럴진ᄃᆡ 원ᄒᆞᆫ니
그릇ᄒᆞ미니 ᄌᆞᄅᆞᆯ혀 ᄀᆞᄅᆞ니 ᄒᆞᆼ끠 간은 어ᄉᆡ ᄌᆞᆺ의
이ᄀᆞᆫ노 ᄒᆞᆼ인이 나ᄅᆞ리 ᄒᆞᆼ끠 간은 져셕 ᄯᅥᆨ 졉이
나 만일 ᄒᆞᆼ인의 셩명을 ᄋᆞᆯ을 져ᄒᆞᆯ 진ᄃᆡ 녹두ᄒᆞᆼ
이라 날ᄒᆞᄅᆞ니 명ᄇᆡᆨ히 ᄀᆡ역ᄒᆞ라 ᄑᆞᆯ쥬이 답응
ᄒᆞᆯ ᄌᆞᄅᆞᆯ혀 그 션ᄉᆡᆼ이 다시야 ᄀᆡᄒᆞᆯ가 두려 ᄒᆞᆼ즁
의 셥ᄇᆞᆫ 착급ᄒᆞ며 녹가의 졉문을 드리가 되년
ᄒᆞ여 헐ᄒᆞ히며 진ᄉᆡ ᄒᆞᆼ망군 이ᄂᆞᆯ ᄎᆞᆺ의 어ᄅᆞ히ᄂᆞᆯ

조ᄎᆞ혀 말을 삼가 며ᄂᆞ리 이 곳의 사ᄅᆞᆷ이 잇ᄂᆞ냐
일ᄭᅴ 초중이 답응ᄒᆞ거ᄂᆞᆯ 필ᄌᆞᆨ이 ᄭᅮ지져 이ᄅᆞᄃᆡ
두룽의 집이야 그 초중이 ᄂᆞ리ᄭᅴ 울ᄋᆞᄃᆡ 필
ᄌᆞᆨ이 ᄂᆞ리 이것을 전리 드러가 말ᄒᆞ리의 업ᄒᆞ
날 직이 왓다 말ᄒᆞ라 초중이 ᄭᅳᆺ을 드록 혀 ᄂᆡ 간으
로 드러가 기 ᄭᅳ의 게ᄂᆞᆫ ᄒᆞ리 일ᄭᅴ의 쳐의 셔ᄋᆞ의 업
ᄒᆞᄂᆞᆫ 직이 이제 어 곳의 왓시니 쏄ᄂᆞ 가셔 셔낭의
게ᄂᆞᆫ ᄒᆞ라 ᄒᆞ니 초ᄒᆞᆨ ᄉᆞᄅᆞᆷ 알녀 ᄒᆞ셔든 차간하 회
분히 ᄒᆞ라

풍원

노진은 곳 홍ᄶᅵ 간의 일ᄭᅴ가 ᄭᆡᄂᆞ 랑ᄌᆞ 초중이 드려
와 말ᄒᆞ리 일ᄭᅴ와 쳐의 셔온 외입ᄒᆞᆫ 직이 외면
의 어ᄂᆞ다 ᄒᆞ거ᄂᆞᆯ 셔셩 각ᄒᆞᄃᆡ 외 쳐의 온 셜ᄌᆞ이 반ᄃᆞ
시 큰 지ᄭᅳᆯ이 업ᄉᆞᆯ지라 이러ᄆᆞᆯ 초중을 ᄒᆞ여금
져ᄅᆞᆯ 발ᄎᆞᆼ ᄒᆞ여 가게 ᄒᆞ라 ᄒᆞ여 ᄃᆞ니 여지ᄒᆞ지
아지 굿ᄒᆞ리ᄅᆞ다 ᄒᆞ며 거ᄭᅴ ᄎᆞᆯ ᄉᆞᆯ 중의 ᄉᆞ랑ᄒᆞ
더니 맛ᄎᆞᆷ 초중이 ᄂᆡ 간을 드러와 ᄯᅢ ᄎᆞ ᄒᆞ며 이ᄅᆞ
ᄃᆡ 만야 ᄂᆡ 이 말을 ᄒᆞ면 너의 등이 한 희 ᄒᆞ리라

기ᄁᆡ ᄂᆞᆯ히 ᄀᆞ엿더 ᄒᆞ더니 ᄌᆞ즁이 ᄂᆞᆯ히 써 뎌를
딘ᄒᆞ여 말ᄒᆞ엿더니 졔ᄌᆞ를 혀 말ᄒᆞ리니 큰 ᄌᆞ를
이어서 나이 ᄀᆞ의 서여러 허물의 입ᄒᆞ려 ᄒᆞᄂᆞ라 ᄒᆞᆫ
더라 기ᄁᆡ 흠ᄃᆡ 소ᄒᆞ며 ᄂᆞᆯ히 ᄭᅮᆯ 큰 ᄌᆞ완 ᄒᆞᄂᆞᆫ
히여러 허ᄌᆞ를의 입ᄒᆞ리오서 ᄌᆞ를 혀 미지 아니ᄒᆞᄂᆞ
니ᄂᆞ가 져ᄌᆞ를 브리라 ᄒᆞ며 기ᄁᆡ 거선ᄒᆞ여ᄂᆞ와
뎔ᄌᆞ을 브니 일치 ᄎᆞ년이 망건 옥복을 인ᄌᆞ이
ᄎᆞ써 ᄒᆞ며 북혁이 섞히 화려ᄒᆞ여 단정코 섞상ᄒᆞᆯ
시ᄌᆞ이 아니라 시ᄌᆞᆼ의 ᄉᆡᆼ각ᄒᆞ리 이날 일위 저산

이ᄂᆞ의 ᄭᅳᆫ을 드러 와ᄂᆞ ᄒᆞᆯ 일ᄇᆞ를 ᄀᆞ서 펴 복을
날ᄀᆞ며 은근 례히 ᄒᆞᄂᆞ 마일 경ᄂᆞᆼ 일을 말ᄒᆞᆯ
진지 나 만의 복을 ᄌᆞᆼ히 너기고 시ᄌᆞ을 ᄌᆞᆼ히 너
기지 아니ᄒᆞᄂᆞ지라 ᄌᆞ방근 다 기ᄁᆡ 다만 죄면 엇
날 시ᄌᆞ을 봉승ᄒᆞᄂᆞᆫ ᄂᆞᆯ지 말고 ᄭᅩᆺ이 ᄌᆞ의 ᄋᆞᆯ
봉외 ᄭᅩ다 ᄌᆞ방근의 석견 다 ᄀᆞᆺ ᄒᆞ여 다ᄅᆞᆫ 시ᄌᆞ의,
복이 ᄂᆡᄂᆞ ᄒᆞᆯ ᄇᆞᆫ면 죄어 ᄭᅮ리 ᄌᆞᆼ ᄌᆞᆼ 춘 이리라
아른 죄 아니 ᄒᆞᆫ 다만 의복이 화려ᄒᆞ며 ᄎᆞ즁의
여간 음젼이 이셔면 념치 업ᄉᆞᆯ 롱우 등이 미ᄅᆞᆨ

만과 ᄀᆞᆺ흔 얼굴을 두려ᄒᆞ고 ᄎᆞᄎᆞ 봉승ᄒᆞᆯ 갑히ᄒᆞᆯ
되치 ᄆᆞᆺᄒᆞ더라 기ᄭᅴ 필ᄌᆞᄀᆡ의 의상이 현양ᄒᆞ
고 심원 복식이 ᄭᅳᆯ 볼 갑히 ᄒᆞᆯ리치 ᄆᆞᆺᄒᆞ여 ᄆᆞᆫ
두니 ᄂᆞᆯ쥐 상궁은 쳥권쥐 안ᄌᆞ라 ᄒᆞ니 필ᄌᆞᄀᆡ 셩
니의 져ᄅᆞᆯ 상궁이라 부ᄅᆞᆯ 뜻지 ᄆᆞᆺᄒᆞ다가 지금
기ᄭᅴ 상궁이라 부ᄅᆞᆯ ᄯᅳᆯ 등ᄭᅳᆷ이 쳥히 션셔여 ᄯᅥᆫ
돗ᄒᆞ여 간화ᄒᆞᆫ 말 ᄒᆞ쥐 마ᄂᆞᆯ 쳥권쥐 아ᄌᆞ라 기ᄭᅴ
나ᄅᆞᆯ쥐 쳥권쥐 ᄭᅮᆷᄂᆞ니 상궁의 ᄌᆞᆫ 셩은 ᄭᅳᆷ어시며
귀부ᄅᆞᆯ 어이 ᄎᆞ이ᄂᆞᆫ 필ᄌᆞᄀᆡ어 ᄌᆞᆯ 셩각ᄒᆞᄭᅴ 부

두블거ᄌᆞᆨ 말ᄉᆞᆷ을 ᄒᆞᆯ지라 ᄃᆡ답ᄒᆞ되 ᄒᆞᆨᄉᆡᆼ 망경
은 하ᄂᆞᆯ인 이ᄅᆞ라 기ᄭᅴ 나ᄅᆞᆯ쥐 닥쳥코 ᄌᆞᆨ환ᄒᆞ리
ᄅᆞᆨ나 필ᄌᆞᄀᆡ어 나ᄅᆞᆯ쥐 쳔ᄌᆞᄅᆞᆯ 일릇각ᄂᆞᆫ 부친은
나 부상 ᄆᆡ며 집이 부조ᄒᆞ여 하ᄂᆞᆯ 이ᄅᆞ 셩의 대열
지 ᄌᆞᄅᆞᆯ 날ᄅᆞᆺ지라 니 븐쥐 쳥누ᄅᆞᆯ ᄯᅡᆫ나 ᄭᅮᆯ ᄌᆞ하
ᄒᆞ여 하ᄂᆞᆯ 쳥누ᄅᆞᆯ 막히 구경ᄒᆞ여서 쥐 지금은
븐 쳐다 망의셔 다셔의 입ᄒᆞᆯ거서 엽ᄌᆞᆸ지라 이러
ᄭᅳᆯ이 ᄌᆞᆺ의와 셔기 녀ᄅᆞᆯ 구경 ᄌᆞ곡ᄒᆞᄂᆞ라 기ᄭᅴ 둣
고가、ᄯᅢ초ᄒᆞ여 나ᄅᆞᆯ쥐 의야 원쥐 얼외 ᄯᅢ귀 엇어

어ᄅᆞᆯ ᄂᆞ비가 실례 ᄒᆞᄂᆞ다 필ᄌᆞᆫ이 너ᄅᆞᆯ희 엇지 감
히 당ᄒᆞ리오 ᄒᆞ며 쳥ᄒᆞ야 셜화 ᄒᆞᆯᄉᆡ 이의 ᄎᆞ동이
차ᄅᆞᆯ 가지고 오거ᄂᆞᆯ 기ᄭᅴ 너ᄅᆞᆯ희 지 중ᄌᆞᆯ 쳥컨ᄃᆡ
차ᄅᆞᆯ ᄃᆞ시라 필ᄌᆞᆫ이 ᄉᆞ양 ᄒᆞ다가 마시니 기ᄭᅴ 너ᄅᆞᆯ
ᄃᆡ ᄭᆡᆺ히 ᄭᅮᆯ니 지 중ᄌᆞ어 ᄌᆞ의와 셔 ᄭᅮ어ᄅᆞᆯ ᄒᆞ려
ᄒᆞᆫ셔 ᄂᆞ로 필ᄌᆞᆫ이 너ᄅᆞᆯ희 여ᄅᆞᆯ ᄎᆞ이지 아니 ᄒᆞᄂᆞ니
다만 너가 ᄌᆞᆼ의 셔 울쳑 ᄒᆞᄅᆞᆯ 견ᄃᆡ지 못ᄒᆞᄅᆞᆯ
인ᄒᆞ여 나와 싼 ᄎᆞᄅᆞᆯ 못 ᄉᆞᆫ ᄒᆞᆫ다가 너의 집의 광
지 녀ᄉᆞᆼ이 이셔 ᄭᅮ다 롱ᄎᆞ와 봄 ᄭᅬ비 ᄯᅥᆨ다 ᄒᆞᆯ

ᄃᆞᆯ 득별이와 셔 ᄭᅩᆺᄃᆞ온 ᄉᆞ뢰을 벼려 ᄒᆞᄃᆞ라 기ᄭᅴ
너ᄅᆞᆯ희 ᄃᆡ지인이 하례 ᄒᆞ시미 희한 ᄒᆞ니 진지홍
ᄎᆡ 잇ᄂᆞᆫ다 ᄒᆞᆫ 중ᄌᆞᆯ 쳥컨ᄃᆡ 안ᄌᆞ시라 ᄂᆡ 녀ᄋᆞ 등을
ᄇᆞᆯ너 ᄂᆞ오게 ᄒᆞ리라 ᄒᆞ며 ᄑᆡᆯ을 두루 혀 ᄂᆡ 잔을
드러가 거ᄂᆞᆯ 필ᄌᆞᆫ이 쳥 ᄒᆞ 기다리더니 기ᄭᅴ 쏫
ᄀᆞᆺ흔 녀ᄉᆞᆼ을 ᄇᆞᆯ너 ᄂᆞ오ᄃᆡ 일쳔 향ᄅᆞᆼ이 ᄎᆞᆨ비
ᄒᆞ며 ᄃᆡ되 목 졍ᄒᆞ시라 기ᄭᅴ 너ᄅᆞᆯ희 ᄋᆞ녀 등
아 져블어 ᄌᆞ 증 ᄌᆞᆼᄎᆞ의 ᄃᆡ지인이 셔니와 셔례
ᄅᆞᆨ퇴 오라 ᄃᆡᆼ희 가예 ᄂᆞᆸ을 ᄒᆞᄅᆞᆯ 즉 장 ᄒᆞ여와 셔

나라희 망키 인아 우리ᄂᆞᆫ 항례ᄒᆞᄂᆞ라 팔ᄌᆞ이니
ᄀᆞ리 이야 불ᄊᆞᆨᄒᆞ여라 기피 나라희 여ᄋᆞ등은 ᄯᅢ
야ᄅᆞᆯ 끠설이 ᄎᆞ의 안ᄌᆞ서라 내가 셔ᄎᆞᆯ을 예비
ᄒᆞ리라 팔ᄌᆞ이 나라희 노친당은 이리ᄅᆞᆯ 오라 기피
나라희 ᄯᅢ야 날 국어ᄅᆞᆯ ᄒᆞ려 ᄒᆞᄂᆞ로 팔ᄌᆞ이 나라희 노
친당 아니어 섭ᄉᆞᆼ은 ᄌᆞᄅᆞᆯ 비ᄂᆞ니 너ᄅᆞᆯ 곳쳐가라 리
라 기피 대ᄎᆞᆯᄒᆞ며 나라희 ᄯᅢ야 날친이 ᄯᅢ져 ᄎᆞᆷᄂᆞᆫ다
엇지 이러ᄐᆞᆺ 할ᄉᆞᆨ ᄒᆞᆫ고 팔ᄌᆞ이 나라희 다만 ᄌᆞ연
ᄒᆞ비 셜ᄋᆞᆫ 아니라 외업ᄒᆞᆫ ᄌᆞ이 걸ᄒᆞᆯ 기ᄅᆞᆼ의 드려ᄉᆞᆺ

ᄂᆞᆫ이라 기피 나라희 국ᄉᆞ 말이오 노미가 ᄌᆞ연을 ᄎᆡᆨ
ᄒᆞ리라 팔ᄌᆞ이 나라희 성ᄎᆞᆯ 말ᄂᆞᆯ 말나 ᄒᆞ니
줄 국실ᄌᆞ이 통ᄂᆞᆫ 장의 드려가 면 셩졍이 ᄌᆞ연
편ᄒᆞᄂᆞᆫ지라 팔ᄌᆞ이 읽의 미ᄒᆞᆫ 친의 드려 선혼
이 미친 ᄃᆞᆺᄒᆞ더니 ᄎᆞ경의 ᄌᆞ연을 ᄌᆞ히 버릴
ᄌᆞ뢰 랑녀상이 ᄒᆞᆨᄀᆡ 팔ᄌᆞ을 끠셔 흥ᄎᆡᆨ 잇게 잔
을 뎐ᄒᆞ며 닭ᄎᆞ 희환ᄒᆞ다가 우리지 아냐 뎐ᄒᆡᆨ
이 ᄂᆞᆺ거ᄅᆞᆯ 팔ᄌᆞ이 의려 앙앙ᄒᆞ여 옥앙ᄉᆡ ᄌᆞ연상
을ᄅᆞᆯ 더브러 망ᄅᆞᆼ을ᄅᆞᆯ ᄌᆞ라가 일야ᄅᆞᆯ 지내더니

의일봇허필ᄌᆞ이 칙셔이미혹ᄒᆞ여 다만기여
만이련ᄒᆞᆯ 엇지이일ᄉᆞᆨ 한가지 평경의일을싱
각ᄒᆞ리오ᄂᆞᆯ마다 낫이면 각젹의와서 만젼을회
계ᄒᆞᆯ 막이면 기가의셔 ᄌᆞ더니 만월ᄌᆞ되여은
ᄌᆞ삭픽낭을 꾸다 뜰기뫼셔은 랑을 ᄅᆞ딕ᄒᆞ거ᄉᆞᆯ
필ᄌᆞ이 엇지ᄒᆞᆯᄌᆞ견 이업ᄂᆞᆫ ᄅᆞ인 녹ᄃᆞᆨ둥이ᄅᆞᆫ
업ᄉᆞ불 블ᄌᆞ져 봉ᄒᆞᆷ처 아니ᄒᆞᆯ지라 필ᄌᆞ이
싱각ᄒᆞ되 은ᄌᆞ륜ᄒᆞ나 빗시되 꾸나 빗다ᄒᆞ기 어려
온이 ᄅᆞᆷᄒᆞ여 아즉 ᄃᆞᄒᆞᆯ말노 ᄒᆞᆨ이ᄅᆞᆯ 다시 싱랑ᄒᆞ리

라ᄒᆞ여 ᄭᅳᆫ드니ᄂᆞ려 ᄂᆞ친낭 아네은 ᄌᆞ달나ᄒᆞᆯ거
ᄉᆞᆯ 즉시 ᄎᆞ지 ᄭᅩᆺᄒᆞ나 막일면ᄉᆞᆯ을 지혜ᄒᆞ면 ᄌᆞ
금을 달나ᄒᆞ여 ᄅᆞ곡어서 어려올거시 업ᄉᆞ니 이열
을 ᄯᅥᄉᆞ 로알ᄂᆞᆫ 착금지 말나 기ᄶᅵ 나ᄂᆞ려 ᄯᅢ야 날다
만다 쳐셔 ᄉᆞᆯ금이라 ᄌᆞᆼ시ᄒᆞᆯ면의 미ᄉᆞ기여려 오니은
지곡젼의 엇셔야 마야 ᄒᆞᆯ 셜장 ᄋᆞᆯ을 알거시오ᄯᅡᆫ
일곡젼의 업ᄉᆞ면 필경 ᄒᆞᆫ 말을 ᄇᆡᆼ거ᄒᆞᆯ거시업
ᄂᆞ니 필ᄌᆞ이 ᄂᆞ려ᄂᆞ 친ᄒᆞ야 네가 그ᄅᆞᆯ ᄅᆞᄒᆞ니여
의ᄌᆞ의 쳐 은금을 셔의 ᄯᅥᆫ리 삭픽낭을 집어 셔ᄭᅩ다

너의ᄌᆞ의셔ᄯᅳᆯ이졔맛ᄎᆞᆯ진ᄒᆞ여시니작서ᄉᆞᆨ
일을의ᄉᆡᆼ을지니여ᄀᆞᆷ어서히ᄅᆞᆯ우리우ᄯᅵ열
봉셔신을ᄯᅢ집의부니면ᄉᆞ쳔ᄉᆡᆼ이라도가져나
가너ᄅᆞᆯᄌᆞ리라기ᄭᅴ니ᄅᆞᆯ치의야날ᄌᆞᆯ혀ᄀᆞᆯ
지아니코ᄌᆞᄯᅢ애ᄀᆞᆯᄋᆞ다 필ᄌᆞ이니ᄅᆞᆯ치여지ᄒᆞ
여ᄌᆞᆯ혀니가ᄀᆞᆯᄂᆞ기ᄭᅴ니ᄅᆞᆯ치며 권치다ᄅᆞᆫ니
매일왼치의ᄉᆡᆼ이이서치맛일이일을말ᄒᆞᆯ진
티ᄀᆞᆫ의ᄉᆡᆼ이이시리오은치이시면ᄌᆞ연ᄒᆞ려니며
ᄀᆞᆯ어서오은치업ᄉᆞ면티인의게ᄉᆞ양ᄒᆞ미ᄀᆞᆯ오리

라 필ᄌᆞ이니ᄅᆞᆯ치어ᄯᅳᆺᄅᆞᆯ진치ᄌᆞ일의 작간일야
ᄅᆞᆯ의ᄉᆡᆼ을지니면명일의네게갑ᄒᆞ리라기
ᄭᅴ니ᄅᆞᆯ치ᄂᆞᆫ이가장심장이ᄀᆞᆺ지ᄭᅳᆺᄒᆞᆯ지라너
의어ᄭᅳᆺᄒᆞᆫ말을ᄃᆞᆯ치ᄶᅵ어ᄅᆞᆯ일야을ᄯᅥᄭᅳᆯ게
ᄒᆞᄂᆞ니명일의맛일뭇치업ᄉᆞ면단졍ᄏᆞ가라
필ᄌᆞ이니ᄅᆞᆯ치볼ᄅᆞ나ᄒᆞ니왼치기ᄭᅩ둥이잇ᄂᆞᆯ
일젹은졍이업ᄉᆞᆯ지라필ᄌᆞ의은ᄉᆞᆨ업ᄉᆞᆯ엽
ᄉᆞᆨ히여져링ᄉᆞᆨ히ᄯᅢ졉ᄒᆞ여연셕을ᄲᅢᄌᆞ지
아니코니만형일의며날두어가지 치ᄅᆞᆯ맛ᄇᆞᆯ을

주거ᄂᆞᆯ 필ᄌᆔ이 밥을 먹은 후의 방즁을 가ᄂᆞ니
뇌일ᄂᆞ오 가장은 졍 이던 주여상이 문을 여지
아니거ᄂᆞᆯ 필ᄌᆔ이 필경 기여의 셩졍이 ᄒᆞ박ᄒᆞ
여 다만 쇄리만 즁은 젼이 업ᄉᆞ면 당각의 편다
ᄒᆞᄆᆞᆯ 서ᄅᆞ지 못ᄒᆞᆯ 싀즁의 가장 변민ᄒᆞ여 편
ᄒᆞ여 인걸 ᄒᆞ니 기예 즁시 허치 아니 ᄒᆞ다가 저ᄉᆔᆼ
각 ᄒᆞᆯ 강잉ᄒᆞ여 문을 여러 드려 일야ᄅᆞᆯ 머믈
게 ᄒᆞ니 ᄎᆞ후ᄂᆞᆫ ᄅᆞᆯ 일ᄒᆞ여 ᄒᆞ거든 차령하 희분히
ᄒᆞ라

반ᄌᆔ (필ᄌᆔ을 힐문ᄒᆞ미라)

필ᄌᆔ이 주막 근다 기끄등의게 ᄎᆞᆨ은 ᄌᆔᄅᆞᆯ 닙어 ᄉᆔ 빅
광을 ᄂᆞᄅᆞᆯ ᄭᅥ나 ᄲᅡᆯ 작야 의젹ᄅᆞᆯ 즐겨 머믈너 일
야ᄅᆞᆯ 묵죽게 ᄒᆞ니 ᄒᆞ거ᄂᆞᆯ 필ᄌᆔ이 ᄌᆔ 꾀의게 여설
ᄒᆞ여 져 못 일야 며느ᄅᆞᆯ 허ᄒᆞ더니 뇌일 나오 주
녀샹이 여욕 극졍ᄒᆞ여 평일의 거동은 싀졀
ᄒᆞ다가 필ᄌᆔ의 분ᄂᆞᆨ 엽ᄒᆞ물 보ᄂᆞᆫ 당ᄌᆔᆨ의 악헉을
변ᄒᆞ며 ᄭᅮᆷᄌᆔ을 굿게 ᄒᆞ여 졀져 방문을 여지 아
니 ᄒᆞ다가 저ᄉᆔ 강졀ᄒᆞ여 져 못 드러가 일야ᄅᆞᆯ 젼

도로지 아니ᄒᆞ더니 익일은 엇지ᄒᆞᆯ 도리 업ᄉᆞ지라 셰
죵의 ᄉᆡᆼ각ᄒᆞ되 쳔리 ᄀᆡᆨ관 군라 기ᄭᅳᆫ ᄒᆞᆨ박ᄒᆞᆫ
셜ᄒᆡ 이어니와 치상이 더옥 낭ᄌᆡ 이 업ᄉᆞᆯ 조ᄎᆞ아
관 시러오니 저ᄅᆞᆯ ᄎᆞᆨ이 ᄃᆞᆯ션ᄒᆞ여 가리라 ᄒᆞᆯ기
구ᄅᆞᆯ 블너 니ᄅᆞ되 노친 ᄉᆞᆼ아 ᄂᆡ 갓다가 오리라 기의
니ᄅᆞ되 네가 ᄂᆞᆯ ᄒᆞ냐 ᄌᆞᆯ쥬이 니ᄅᆞ되 졍히 은ᄌᆞᆯ
가지고 죽서 오리라 기의 니ᄅᆞ되 이곳 ᄒᆞᆯ진ᄃᆡ 녹셔
오라 ᄌᆞᆯ쥬이 ᄂᆞᆸ은 ᄒᆞᆯ나 올시 셰죵이 ᄀᆞᄌᆡᆼᄒᆞᆸ
ᄒᆞ여 다만 머리ᄅᆞᆯ ᄭᅡᆷ니 ᄒᆞᆫ 들며 석ᄒᆡ 거려 ᄃᆡ젹ᄒᆡ

을 도라와 민울이 안ᄌᆞ서 ᄭᅵ 더옥 셰죵의 ᄭᅦᆼ렬
ᄒᆞᆫ 화의 죵 ᄌᆞᆼᄒᆞ며 견ᄃᆡ기 어려온지라 인ᄒᆞ여 셰
죵의 ᄉᆡᆼ각ᄒᆞ되 ᄌᆞ지 못ᄒᆞ로다 지금 ᄡᅡ ᄇᆡᆨᄉᆡᆼ을 ᄉᆞ
ᄅᆞᆯ 그다 ᄢᅢ시 ᄯᅢ 하낡을 가기로 어려올 경죵을 드
가지 ᄭᅩᆺ ᄒᆞ리니 이 ᄀᆞᆯ 엇지 ᄒᆞ리오 그러나 ᄌᆞᄅᆞ 혀 얼
좌진 ᄌᆞᆨ 담이 이ᄌᆞ의 이ᄉᆞ니 만일 ᄯᅥᆯ면 셩ᄒᆞᆯ 뎟 ᄅᆡᆼ은
ᄌᆞᄅᆞᆯ 바 들지라 다만 진족 탑을 ᄯᅡ라 가지고 다른
디방의 가셔 별 그ᄒᆡ ᄉᆡᆼ이 길을 어더 셰월을
보내고 금ᄉᆡᆼ 금셰의 다ᄉᆞ 외임을 말며 은랑을

고화 졍졀 힝ᄒᆞ여 가축을 영ᄎᆔᄒᆞ여 수
을 ᄎᆔᄒᆞ리라 ᄒᆞ다가 셕나ᄒᆡ 만월을 너ᄆᆡ의
입ᄒᆞ엿더니 다만 머리어 ᄌᆞᆯᄒᆞᆯ 눈이 희미ᄒᆞ여
시ᄂᆡ히 온ᄒᆞᄃᆞ다 ᄒᆞᆯ 옷ᄉᆞᆯ님은 쳐ᄂᆞ어 ᄉᆞ더니 ᄭᅮᆷ
중의 산 ᄒᆞᆫᄂᆡ ᄒᆞ여 나ᄒᆡ ᄌᆞ망군 다녀상을 나를
엽ᄎᆞᆨ히 너기ᄂᆞᆯ지라 ᄒᆞ거ᄂᆞᆯ 젹ᄎᆔ 도ᄉᆞ 졉즁의
ᄉᆡᆼ각ᄒᆞ리 ᄌᆞ분 잔인이 의입ᄒᆞᄂᆞ가 ᄭᅳᆯ 변ᄂᆡᆨᄒᆞ
미 잇ᄂᆞ다 ᄒᆞᆫ ᄎᆞᆨ졍이 필ᄌᆔ이 셔기를 기다려 연
옥ᄃᆞᆯ ᄭᅮ르리 필ᄌᆔ이 셜ᄭᆞᆼ ᄃᆡ를 일ᄌᆞᆨ히 ᄆᆞᆯᄒᆞ거

ᄂᆞᆯ 젹ᄎᆔ 나ᄒᆡ 녀상이 심히 광ᄉᆡ 이업ᄉᆞ 셜ᄌᆔ이
ᄅᆞ다 너의 운젼이 ᄉᆡᆨ 결보면 운운이 ᄯᅢ 졉ᄒᆞᆯ 말일
운젼이 업ᄉᆞ면 엇지 이ᄀᆞᆺ치 편라 ᄒᆞᄂᆞ뇨 필ᄌᆔ이
나ᄒᆡ ᄌᆞ인의 ᄯᆞᆯ이 그ᄅᆞ지 아니ᄒᆞ니 지ᄌᆔ은 다ᄉᆞ홍
끠 간의 ᄀᆞ지 아니ᄀᆞ 잠녀ᄉᆞ을 ᄭᅮ다 다리ᄯᅩ라 젹ᄎᆔ
ᄂᆞᆯ 나ᄒᆡ 조ᄅᆞ다 간인은 어ᄃᆡ 셧의지 못ᄒᆞᆯᄅᆞ라 가려ᄒᆞ
ᄂᆞ뇨 필ᄌᆔ이 나ᄒᆡ ᄌᆞᆯ려 ᄎᆞᆨ열을 지톄 ᄒᆞ리라 젹ᄎᆔ
ᄎᆔ 나ᄒᆡ 망젼은 엇지 ᄒᆞ려 ᄒᆞᄂᆞ뇨 필ᄌᆔ이 나ᄒᆡ
리ᄉᆞ 말시의 ᄭᅮ다 혜ᄉᆞᄒᆞ리니 결단코 너의 세운젼을

지 아니리라 젹죄 답응ᄒᆞᆯ 즈ᅀᅵ나 가ᄂᆞ지라 ᄯᅩᆯ
ᄆᆞᆷ이 젼일ᄉᆞ를 후회ᄒᆞ리 ᄌᆞᆨ시 ᄉᆡᆼ각을 그ᄅᆞᆺᄒᆞ
여ᄂᆞᆫ 젼물을 모다 ᄲᅥ셔 바려서ᄂᆡ 경셩 의ᄌᆞ가지 곳
ᄒᆞᆯ 희ᄂᆞᆺ 의ᄌᆞ가기 어려오며 거곡곡 천ᄒᆞᄂᆡ 심문
각ᄉᆡᆼᄒᆞ나 좌우ᄅᆞ랑ᄒᆞ여 ᄌᆞ일ᄌᆞᄌᆞ 연이 업ᄉᆞ며 진
죽 답을 ᄀᆞ리라 ᄒᆞᆫ 젼물 ᄭᅵᆫ 들여ᄒᆞ여 ᄉᆞᆯ셰ᄅᆞᆷ이 업
ᄉᆞᄂᆡ 여ᄌᆞ지 ᄒᆞ리오 ᄒᆞ여ᄌᆞ야 편민ᄒᆞᆯ 식욕의 ᄆᆞᄋᆞᆷ이
ᄉᆡᆼᄒᆞ여 졍신이 ᄭᅩᆯᄒᆞ며 긔력이 허겁ᄒᆞ여 ᄌᆞ연
평이 나ᄂᆡ 직ᄉᆞ믈 임ᄒᆞᆯ 길을 ᄂᆞ지 ᄭᅩᆺᄒᆞᆯ지라

젹죄 착급ᄒᆞ여 나만의 원을 평ᄒᆞ여 치료ᄒᆞᄂᆡ
ᄂᆡ일이오 져ᄉᆞ믄 약이 맛지 아니다가 다ᄒᆡᆼ히 의원
의ᄅᆞᆯ 엄어 ᄀᆡ려ᄅᆞᆯ ᄌᆞ연이 복ᄒᆞ려니 복셔ᄒᆞ여 져ᄉᆞ
약을 먹이ᄆᆡ 쳔ᄌᆞᄉᆞ믜 진약을 면ᄒᆞ여 평이ᄂᆞᄒᆞᆺ
시나 의복 라 묵지ᄅᆞᆯ ᄭᅳ나 뎐당ᄒᆞᆯ 다ᄆᆞᆫ ᄭᅳᄉᆞ아진
죽 답이나 맛지 니 여ᄌᆞ지 ᄒᆞ여 진죽 답을 ᄀᆞ지 아니
ᄒᆞ여ᄉᆞᆯ 첫진ᄅᆞᆯ ᄉᆞᆯ셰ᄅᆞᆷ이 업ᄉᆞ미오 돌져ᄒᆞᆯ이거
ᄒᆞᆯ며 ᄭᅳᆯ어 ᄂᆞ미ᄅᆞᆯ ᄯᅳ려ᄒᆞ여 ᄅᆞᆯ혀 ᄆᆡᆼ미 치지 아니
미러라 그러나 ᄅᆞᆯ혀 ᄉᆡᆼ계 업더니 다만 쳘ᄌᆞᄉᆞ미

당년의 일즉 두어 ᄌᆞᆯ 도동의 누리를 면ᄒᆞᆯ지
라 ᄎᆞ시의 엇지 ᄒᆞᆯ 길이 업서 젹국을 더브러 상냥
ᄒᆞ리 ᄒᆞᆫ 멀 ᄌᆞ동의 복석 다 제구를 ᄎᆞᆨ미 ᄒᆞ여도
동의 끄앙을 ᄒᆞᆯ 강호의 녹슈ᄒᆞ미 심ᄒᆞᆫ가지
도리가 되리라 ᄒᆞᆯ즉시 이것치 판니ᄒᆞ여 거리를
단니며 노리ᄒᆞ여 몃낫 돈을 어더 세월을 보니더
니 상뉴이 신측ᄒᆞ여 ᄒᆞᆯ연 던콩지졀이 되여서
며 ᄎᆞ쳐 강셔ᄂᆞ 방의 ᄌᆞ젹이 서기히 만ᄒᆞ리나 만보ᄒᆞᆯ
글젹만 이슬 잡은 글젹이 업슬지라 즉ᄭᅴ 널니다

망간의 계신 척ᄒᆞ여 각거 ᄌᆞ획ᄒᆞ라 ᄒᆞ거ᄂᆞᆯ 각쳐
쿠현이 끄나 ᄌᆞ셰ᄒᆞ여 거리의 ᄋᆞ서를 못ᄎᆞ지리일
졀ᄌᆞᆨᄒᆞ여 젹ᄂᆞ의 면 ᄭᅮᆨ 싱ᄎᆞᄒᆞᆯ 실ᄂᆞ을 며ᄭᅳ를지 말
나ᄒᆞ며 구강지부ᄒᆞᆫ 티야 ᄂᆞ일시 평녀ᄒᆞᆯ 간쳔이
라 ᄯᅡᆫ ᄎᆞᆨ아 여둥이 젹은 일의 동라 ᄒᆞᆯᄂᆞ니여 지앙
젹ᄂᆞ ᄉᆞ의 가셔 ᄌᆞ식야ᄌᆞ ᄒᆞᆯ가 녀여 ᄒᆞ여 이러ᄒᆞᄂᆞᆯ
ᄒᆞᆫ 티애 친히 나가 단니며 실ᄒᆞ더니 일얼은 강
ᄒᆞ이 젹ᄂᆞ의 니ᄅᆞ러사 실ᄒᆞᆯ시 여러 실ᄂᆞ을 ᄭᅳ라 힐
문ᄒᆞ여 ᄌᆞ앙올 ᄌᆞ젹 형젹이 업거ᄂᆞᆯ ᄒᆞᆫ 티애 ᄌᆞ

ᄒᆞᆫ 말ᄉᆞ 위로ᄒᆞ더니 ᄎᆞᆨ후 쳘ᄌᆞ를 볼ᄉᆞ록 셰히
히ᄅᆞᆯ 곤 ᄒᆞᆫ티 쳘ᄌᆞ이 일ᄒᆡᆼ 망경이라 날ᄅᆞ며
니ᄅᆞ되 만셩은 집이 히ᄂᆞᆫ의 머믈러ᄒᆞ니 부셩셔
의 몸 모ᄉᆞᆨ ᄂᆞ의 ᄎᆞᆷ이니 이다ᄒᆞ니 한 지ᄇᆡᆨ니ᄅᆞ되
네 어ᄂᆞ의 ᄉᆞ환가 ᄂᆞ 대면 엇지ᄒᆞ여 이곳 듕 복석을
ᄒᆞ여 시며 ᄉᆞᆨ연에 하ᄂᆞᆯ 실ᄂᆞᆫ의 셩유 ᄀᆞᆺ지 아니ᄒᆞ
니 이를 ᄉᆞ환가 ᄂᆞ 대ᄒᆞ라 ᄭᅮ 징ᄒᆞᆫ 복ᄃᆡᆨ를 ᄒᆞ이미
아니나 쳘ᄌᆞ이 니ᄅᆞ되 어지 ᄀᆞ히 ᄭᅮ 징ᄒᆞ리오 실
ᄂᆞᆷ의 시ᄂᆞ ᄎᆞᆫ이니 ᄯᅢ야 날 다시 ᄃᆞᆫ 곤 ᄒᆞ여 보ᄂᆞ셔 한

지ᄇᆡᆨ이 니ᄅᆞ되 이ᄂᆞᆫ의 만시ᄂᆞᆫ 초일 진ᄃᆡ 부ᄅᆞᆫ의 명ᄇᆡᆨ
ᄒᆞ여 시ᄅᆞ되 쳘ᄌᆞ이 니ᄅᆞ되 만일 ᄂᆞᆷ의 쳔ᄌᆞ의 일홈을
ᄂᆞᄅᆞ 실진ᄃᆡ ᄀᆞᆺ 현ᄌᆞᆨ금이니 ᄂᆞᆸ조ᄒᆞ여 일틈 ᄀᆞ작
을 ᄇᆞᆯ 부쳔졍 망은 니 부싱 쳐를 ᄒᆞ여 셕연의
곤 회현 혁ᄒᆞ더니 다만 ᄀᆞ셜 ᄂᆞ 홍의 희를 ᄂᆞᆸ어
가라 인망ᄒᆞᆯ 일ᄅᆞ의 ᄂᆞᆫ 궁ᄒᆞ지라 ᄭᅮ 친을 ᄭᅢ실
ᄭᅮ 막의 머믈너 이시며 굴을 ᄂᆞᆯ너어 ᄆᆞᆺ어 일ᄂᆞᆫ 학
의 드럿더니 거연의 더옥 셰 ᄭᅬᆯ을 부니 기어렵
능히 ᄌᆞᆨ셔ᄒᆞᆯ ᄂᆞᆫ 봄이 엽ᄅᆞᆯ지라 ᄭᅮ 친이 ᄂᆞ를 명

ᄒᆞ여 양〻ᄯᅡ흐를가 셕은 무진 련의게 울당을 ᄎᆡ
더ᄒᆞ여 ᄶᅡ지ᄅᆞ와 굴ᄅᆞ 뮈ᄅᆞᆯ ᄒᆞ라 ᄒᆞ시거ᄂᆞᆯ 녀얼ᄂᆞ
모ᄅᆞ 죠의 갓 더니ᄅᆞ ᄭᅬᄉᆞ의 빈궁ᄒᆞᆷ을 엽죽히 너겨
울ᄅᆞᆯ 주어 니 죽으나 ᄅᆞᆯ 꼿ᄎᆞ 즈ᄅᆞᆯ 오게 ᄒᆞ니 가련코
나니 ᄃᆞ신을 눈을 ᄀᆞ룹 ᄲᅳᆯ 일ᄂᆞ의 힝ᄒᆞ더니
ᄀᆞ뷔 말을 칙 쳐 죵ᄂᆞ의 ᄯᅡ라와 나의게 진죽 답
일와ᄅᆞᆯ 죽거ᄅᆞᆯ 즉시 발힝ᄒᆞ여 오다가 이곳의 니
ᄅᆞ러 ᄒᆞᆯ연 드ᄂᆞ 병ᄒᆞ여 십분 위ᄃᆞᆨᄒᆞ더니 다힝히
젹긔 ᄎᆡᄅᆞ호 ᄒᆞᆷ을 ᄒᆡ업어 병이 나ᄒᆞᆨ시나 다만 ᄆᆡᆫ젼

이진ᄒᆞᆫ ᄭᅳᆯ 도ᄌᆞᆼ ᄭᅮ앙을 ᄒᆞ여 ᄉᆞᄎᆞᆯ 돈을 어더 련
명ᄒᆞᄂᆞ니 나날 ᄌᆞᆯ히 거ᄌᆞᆺ말을 ᄭᅩᆺ ᄒᆞᄂᆞ이다 ᄒᆞᆫ지
ᄅᆡᆨ니 ᄂᆡᄅᆞᄃᆡ 원ᄅᆡ 어려ᄒᆞᆯ 진ᄃᆡ 다만 너의 셩ᄆᆡᆨ을 드
ᄅᆞᆯᄭᅴ 하ᄂᆞᆯ 실ᄂᆞᆫ 이곳지 아니ᄒᆞᄂᆞ다 ᄭᅳᆯ가 이니ᄅᆞᆯᄯᅢ
야ᄅᆞᆯ ᄒᆞᆨ이지 아니ᄒᆞᄂᆞ니 어오시 봇히 경ᄌᆞ의 이셔
ᄂᆞᆨᄯᅵ라 이러 ᄭᅳᆯ어 ᄋᆞᆫ 이다 ᄒᆞᄂᆞ이다 ᄒᆞᆫ지 ᄆᆡᆨ니ᄅᆞᆯᄃᆡ
이졔 어ᄯᅢ ᄒᆞᆯ가 려ᄒᆞᄂᆞᆫ 뇌 ᄭᅳᆯ ᄋᆞᆫ 이니ᄅᆞᆯᄃᆡ 하ᄂᆞᆯ을
가ᄅᆞ치ᄃᆡ 다만 선편의 열ᄯᅮ쳔이 업ᄉᆞ지라 이러
ᄭᅳᆯᄋᆞᆯ 어 직 ᄌᆞᆨ 졍의 머므다가 셕히 무당을 져ᄎᆞ ᄒᆞᆫ

여가 ᄌᆞ올을 ᄌᆞ라 가게 ᄒᆞ려 ᄒᆞᄂᆞ이다 ᄒᆞ니 쳔리ᄯᆞᆯ
ᄌᆡ이 한 지부의 언에 언ᄌᆞ ᄒᆞᆯ 겨유 ᄒᆞ여 ᄌᆞ세히 ᄒᆞᆯ
ᄆᆞᆯ ᄒᆞᄆᆞᆯ 볼 ᄉᆡᆼ각ᄒᆞ니 ᄌᆞ긔 ᄌᆡ력을 써 ᄌᆞ랑ᄒᆞ
면 혹시 족곱 ᄒᆞᆯ ᄀᆞ리 이실가 아지 못ᄒᆞ리라 ᄒᆞ
엿더니 거ᄋᆞᆯ노 한지벽 ᄯᅵᆯ평ᄒᆞᆯ 제의 셕쳐만
십블언 ᄒᆞ여 ᄂᆞᄅᆞ리 현치야 너ᄂᆞᆯ 가히 일양도 ᄌᆞᆼ
의 ᄭᅩᆷ양을 ᄭᅩᆺ ᄒᆞᆯ지라 ᄂᆡ 이제 너ᄅᆞᆯ 응ᄌᆞ섭 ᄂᆞᆼ
을 ᄌᆞ리니 ᄭᅳ로ᄉᆞ이 만젼을 ᄉᆞ아 기ᄌᆞᆼ을 ᄌᆞ라
가라 ᄯᅵᆯᄌᆡ이 ᄯᅵ 열ᄒᆞ여 ᄀᆞᆼᄌᆞ이 읍ᄒᆞ며 ᄂᆞᄅᆞ리만

일족ᄒᆞᆯ ᄒᆞ시면 은혜 태산 ᄀᆞᆺᄌᆞ오리이다 한지벽ᄯᅵ
쵸ᄒᆞ며 ᄂᆞᄅᆞᆯ ᄯᅴ어 ᄀᆞᆺ흔 ᄉᆞ ᄌᆞ지 ᄉᆞᄅᆞᆯ 어지구ᄌᆞ여 밀
ᄒᆞ리오 다만 네 당신을 뵌 힝ᄒᆞ니 이진즉 답을
신면의 ᄭᅡ지ᄀᆞᆫ ᄭᅩᆺ갈지라 만일 ᄂᆞ의 ᄀᆞᆺ의 며ᄂᆞᆯ ᄂᆡ목
면 일후의 다ᄉᆞᆺ 어의 세 ᄌᆞ라 보ᄂᆡ리라 ᄯᅵᆯᄌᆡ이 십ᄉᆡ
ᄌᆞᆼ의 ᄉᆡᆼ각ᄒᆞᄃᆡ 졔 ᄯᅵᆯ 연ᄂᆞ의 일좌 진족 답을
아ᄉᆞ려 ᄒᆞ면 ᄀᆞᆺᄒᆞ나 다만 ᄇᆞᆼ ᄭᅴ ᄒᆞ여 업서 ᄒᆞ ᄆᆞᆯ알
고져 ᄒᆞᆯ조 여 ᄭᅥ다가 다ᄉᆞ 죠리ᄒᆞᆯ ᄉᆡᆼ각 ᄒᆞᆫ만 ᄀᆞᆺ지 ᄭᅩᆺ
ᄒᆞ다 ᄒᆞᆯ리 ᄀᆞᆺ흔 ᄯᅵᆯᄌᆡ이 한중의 ᄉᆞ셥 낭을 ᄌᆞ롤

탐ᄒᆞ여 당직의 은ᄉᆞᄒᆞ니 한궁이 진쥭탐을 갓
쵹ᄒᆞ며 니ᄅᆞ되 현ᄌᆡ야 널이 곳의 아쥭이셔 라ᄒᆞ
경의셔 아ᄭᅳᆫ을 ᄌᆞ라 가죽셔 실ᄒᆡᆼ을 부러 은ᄌᆞᄅᆞᆯ
뎡니ᄅᆡ라 펼ᄎᆡ여 은ᄉᆞᄒᆞᆯ 셥ᄌᆞᆼ의 ᄉᆡᆼ각ᄒᆞ되 이
녹ᄌᆞ젹이 강조ᄅᆞᆯ ᄆᆞᆺ나 ᄆᆡ니 졔ᄂᆞ의 진쥭탐을 어ᄋᆞᆨ
려ᄒᆞᆫ글 ᄆᆞᆯ을 ᄭᅳᆫ나 ᄌᆞ히 ᄒᆞ미 ᄅᆞ다 ᄒᆞᄂᆞᆫ가 다ᄉᆡᆼ
각ᄒᆞ되 어지ᄆᆞ러 ᄒᆞ되 오젹ᄂᆞᆫ 곳 ᄉᆞᄅᆞᆷ지 복ᄅᆞᆯ 간작
이 낫지 아니 ᄒᆞᆯ지라 혜건되 이곳은 ᄭᅡᆨ뵈이 여ᄂᆞᆯ리
나 ᄭᅡᆨ져ᄅᆞᆯ ᄒᆞ여 ᄌᆞᆫ 진쥭탐을 가져가게 ᄒᆞ면 ᄉᆞ경

의당졍코 은지 오리라 ᄒᆞᆯ 엽히 셧더니 한지뫼ᄀᆞᆫ
등직인을 사실ᄒᆞᆫ 후의 졀ᄌᆞ장ᄎᆞ이 의게 분부
ᄒᆞ되 일졀 면ᄭᅩᆼ ᄎᆞ ᄒᆞᆫ 셔ᄅᆞᆷ을 며ᄋᆞ지 말아 졀
ᄎᆡ 응ᄉᆞᄒᆞ며 니ᄅᆞ되 ᄎᆞᆫ인이 직인의 권력을 사실
ᄒᆞ여 며ᄭᅳᆯ어 두리어다 한지뫼 ᄌᆞ시 외의 ᄅᆞᆯ ᄯᅢ
틀ᄅᆞᆫ 다ᄅᆞᆫ 졀을 ᄀᆞ 셔ᄭᅩ다 사실ᄒᆞ여 면ᄭᅩᆼ ᄎᆞ
ᄒᆞᆫ 셔ᄅᆞᆷ을 ᄎᆞᆨ ᄎᆞᆯ ᄌᆞᆼ 경의 ᄒᆞᆫ 날이 ᄂᆞ되 이ᄌᆞᆼ은
코 ᄌᆞ라 와 ᄎᆞᄌᆞᆼ의 셔 진쥭탐을 ᄂᆡ여 ᄌᆞ세히 보
고 징찬ᄒᆞ며 니ᄅᆞ되 어을ᄂᆡ가 이 ᄭᅳᆯ건을 아ᄉᆞ려

ᄒᆞ미 아니라 다만 졔ᄅᆞ 믹 원졍의 가지 ᄀᆞ미 블편
ᄒᆞᆫ 골인ᄒᆞ여 져ᄅᆞᆯ 위ᄒᆞ여 ᄀᆞ히 간측 곡곡ᄒᆞ미니
일후의 죄오거든 ᄌᆞ라 부ᄃᆡ리라 ᄒᆞᆫ즉시 진ᄒᆞᆫ 탐
을 간측ᄒᆞᆫ 후의 음ᄉᆡᆨ 섭양을 과비ᄒᆞᆫ 연의 ᄉᆡᆨ을
각ᄒᆞ와 ᄒᆞᆫ 뫼ᄇᆞ시어 졀졀이 마야ᄒᆞᄅᆞᆯ 일어 그ᄅᆞᆺ
되지 아니ᄆᆞᆯ 일ᄋᆞᆯ의 ᄉᆞᆷ라 음ᄉᆡᆨ을 측습ᄒᆞ셔 이셔 ᄯᆡ
잉이셔 산의 셔러진지라 셕반을 먹ᄂᆞᆫ 악혈ᄒᆞ여
나 역 일의 필졀이 망젼을 혜ᄒᆞᆫ 후의 졔ᄀᆞᆨ을
직멸ᄒᆞᆫ 가ᄇᆡ 필셩 편셩을 ᄀᆞᆺ치지 ᄀᆞᆺᄒᆞᆫ 화ᄅᆞᆨ

ᄅᆞᆯ 닷ᄒᆞ여 심즁의 ᄉᆡᆼ각ᄒᆞ리 시졀의 열ᄌᆞ 각고
오히려 장ᄃᆞ히 이시니 녀상인들 엇지 셜ᄋᆞ 이업
ᄉᆞ리오 홍거 간 녀상은 낭ᄉᆡᆨ이 업거니와 ᄉᆞᆨ다ᄅᆞᆫ 곳
의 가셔 치닷ᄒᆞ면 혹셔 랑ᄉᆡᆨ이 ᄀᆞᆯ 녀상이 이셜ᄂᆞᆯ
지ᄂᆞᆫ ᄒᆞᆫ 곡졀이니 이 ᄉᆡᆨ셥 랑을 올ᄒᆞᆯ ᄀᆞ지ᄂᆞᆫ 다시 가져
의 엽ᄒᆞ여 부리라 ᄒᆞ며 망탕ᄒᆞᆫ 셩각을 ᄀᆞᆺ치지 못
ᄒᆞ여 일향 쳥누의 ᄂᆞᆫ 일ᄂᆞᆯ 싱각ᄒᆞ니 엇지 못 ᄒᆞ게라
ᄎᆞᆷ후 신 엇지 탄지 차간하 회 ᄇᆞᆫ 히 ᄒᆞ라

견ᄒᆞᆼ 미발 라ᄒᆞᆼ ᄒᆞᆫ

방부인이거년중간의힝ᄉᆞᄅᆞᆯ명ᄒᆞ여양양진
부의가셔은샹을ᄭᆡᄯᅢ게ᄒᆞ엿더니ᄂᆡ알니오각지
여러달이되ᄆᆡ족일ᄒᆞᆫᄌᆞ석이업ᄉᆞᄆᆡ가련ᄒᆞ다일
개ᄂᆞᆷ부인이ᄭᅳᆺᄆᆞᆨ의이시ᄆᆡ다만단ᄒᆞ여ᄲᆡᆨ지을ᄉᆞ
ᄅᆞᆷ이업ᄉᆞᆯ셰아니라겨ᄒᆞ여싱게ᄌᆞ졀ᄒᆞ니여시
그ᄌᆞᄅᆞᆯ견ᄃᆡ리오셕ᄌᆞᆼ의싱각ᄒᆞ리회인불리ᄒᆞᆯ
싦이이셔ᄌᆞᆼ일ᄭᅳ친의겨ᄉᆞᆯ셔나지아니ᄒᆞ니각지
우리ᄃᆡ리ᄌᆞ라무지아니ᄒᆞᆫ어지미ᄅᆞ아지ᄭᅮᆺ게라그부
와그ᄭᅴ족ᄒᆞᆫ졍의ᄅᆞᆯ구지만족ᄒᆞᆯ줄져그항을ᄅᆞ

라보니지아니미야ᄌᆞᄅᆞᆯ혀방경을족ᄒᆞᆯᄒᆞ여그항
을ᄅᆞ고라오ᄂᆞᆫ가ᄌᆞᆼ구의셔ᄇᆞᆯ랑ᄒᆞᆯ시ᄆᆞᆰ을ᄆᆞᆨ아미야
ᄒᆞ며어우리싱각ᄒᆞ여ᄅᆞ혜아리ᄀᆞ어려온지라ᄃᆞᆫ만
ᄌᆞᆨᄌᆞᆼ분ᄭᅳᆺᄌᆞᆯ어별ᄒᆞᆫᄌᆞᆨ기ᄅᆞᆯ꾸름ᄯᅢ원경의
ᄇᆞᆯ힝ᄒᆞ니가련ᄒᆞ다일이명ᄇᆡᆨ셜인이되여쳔
가지리ᄅᆞᆯ온등샹을ᄆᆞᆨ다가일일은강변의셔는
의막혀거의ᄌᆞᆨ을번ᄒᆞ여니다힝히창텬이노
부인을불샹히여져일쳑간셜이강언덕의
다히끌ᄆᆞᆨ아니이ᄅᆞᆯ구강지부한ᄐᆡ야의부인이

비ᄅᆞᆯ 타ᄂᆞᆫ 항을 ᄌᆞ라가 ᄯᅡ가 이ᄌᆞ의셔 눈을 ᄯᅴ
ᄒᆞ여 강상의 머ᄭᅳᆯ어 이셔 미라 그부인이 인ᄌᆞᄒᆞᆯᄭᅡ
옭을 랑부인을 구ᄒᆞ여 션상을 쳥ᄒᆞ여 종두
지미히 ᄭᅮᆺ거ᄂᆞᆯ 랑부인이 ᄭᅢ쳐은 회치ᄭᅩᆺᄒᆞ여 셜
상대ᄅᆞᆯ 곤멸을 ᄌᆞ 세히ᄒᆞᆯ ᄒᆞᄂᆡ 한부인이 랑부인
을 다리ᄂᆞᆫ 형ᄌᆞ가 ᄌᆞᆼ을 ᄌᆞ라가 ᄒᆞᆫᄉᆡ 머ᄆᆞᆯ며
랑부인긔 허락ᄒᆞ리 ᄉᆞᆯ낙을 ᄒᆞ여 ᄌᆞᆨ끼셔 ᄋᆡᆼ으
ᄌᆞ가게 ᄒᆞ리라 ᄒᆞ더니 지알니오 제집의 ᄌᆞ라온
ᄒᆞ의련 ᄒᆞ여 분망ᄒᆞᆫ 일이 만흔지라 이러ᄭᅳᆯ

방부인이 강잉ᄒᆞ여 한부의 머ᄭᅳᆯ나 진지 도일
여련ᄒᆞ여 ᄭᅡ맛니 히오ᄅᆞᆯ 싱각ᄒᆞᆯ 나ᄂᆞᆫ ᄒᆞ더니 ᄌᆞᆨ
ᄒᆞ져기 한가ᄒᆞᆯ 세ᄅᆞᆯ 타 졍히 한부인긔 작별ᄒᆞᆫ
ᄃᆞᆫ양ᄋᆞᆯ 가려 ᄒᆞ여ᄉᆞ더니 제일 향만 ᄌᆞᆨᄒᆞᆯ 늣치
아니ᄒᆞ거ᄂᆞᆯ 세월이 여ᄌᆞᆨᄒᆞ여 쳐ᄉᆞ 난양가 졀이
각ᄀᆞᆸ블ᄶᅵ 부쳐련 여브이련 ᄭᅩᆺ 시가 득ᄒᆞ거ᄂᆞᆯ 랑부
인이 희ᄋᆞᄅᆞᆯ 싱각 ᄉᆡᆼ싊ᄒᆞ여 싊ᄌᆞᆼ의 싱각ᄒᆞ되
희오야 네 ᄌᆞᆼ부ᄌᆞ의 ᄌᆞᆯ을 니ᄌᆞᆫ 어지 옥필옥랑이
라 ᄒᆞᆫ 말을 싱각지 아니ᄂᆞᆫ고 ᄅᆞᆯ ᄂᆞᆯ ᄌᆞᄌᆞᆨ이 ᄭᅳᆺ연

ᄒᆞᆯ 만일 ᄂᆡ 다시 거션ᄒᆞ여 앙앙을 ᄀᆞ지 아니ᄒᆞ면
다만 져러ᄒᆞᆫ 허물을 용셔ᄒᆞ여 다 ᄒᆡᆼ치 신이 될
듯ᄒᆞ니 이 일을 ᄉᆡᆼ각ᄒᆞ면 ᄭᆞᆷᄋᆡ 미졀ᄒᆞ나 ᄒᆞ며
누ᄒᆞ여 우ᄒᆞ다가 다시 ᄉᆡᆼ각ᄒᆞ되 ᄯᅥᆺ당히 ᄒᆞᆷ일
뎐ᄂᆡ 쳥명ᄒᆞᆯ 셰의 부득블 한부인ᄂᆡ 작별ᄒᆞᆯ
거ᄉᆞᆯ 발쳥ᄒᆞ리니 만일 졔일 ᄒᆡᆼ나ᄅᆞᆯ 만족ᄒᆞᆯ
진ᄃᆡ ᄂᆡ 장ᄒᆞᆯ 안졍을 ᄌᆞ라 부지 아니고 ᄌᆞ져히 강걸
ᄒᆞ여 앙앙 ᄉᆞᆨ 힘ᄂᆡᄅᆞᆯ 허희 우ᄅᆞᆯ 블망셔ᄒᆞ여 ᄭᅮ지
ᄒᆞᆫ ᄂᆡ 결ᄒᆡᆼ을 ᄌᆞ라가 ᄌᆞᆨ여로ᄃᆡ 평ᄎᆞᆯ을 직희ᄂᆞᆫ

이시리라 ᄒᆞ여 망부인이 셔ᄎᆞᆼ의 ᄌᆞᆨ의ᄅᆞᆯ 뎡ᄒᆞ
ᄂᆞᆫ 글을 ᄡᅳ며 망ᄎᆞᆼ을 셔ᄉᆞ오더니 맛ᄎᆞᆷ 차
한 ᄎᆡ연이 오거ᄂᆞᆯ 련망히 ᄀᆞᆯ오ᄃᆡ 져야 너의 집부
인이 졍히 당상의 계시냐 ᄎᆡ연이 ᄂᆞᆯᄋᆡ 우리부
인은 ᄃᆡ위ᄅᆞᆯ 션ᄒᆡ지 못ᄒᆞ여 지금 병셜 헌의 가
셔 ᄉᆞᆸ랑ᄒᆞ시니 부인은 가셔 셜화ᄒᆞ여 ᄎᆞᄌᆞᆼᄒᆞ
ᄎᆞ셔 망부인이 나ᄅᆞᆯ ᄃᆡ ᄂᆞ졍히 너의 집 부인을
보려 ᄒᆞᄂᆞ라 ᄎᆡ연이 ᄂᆞᆯᄋᆡ ᄎᆞᆽ을 진ᄎᆡ 부인은 가
ᄎᆞ셔 망부인이 나ᄅᆞᆯ ᄃᆡ ᄎᆞᆽ시가리라 ᄒᆞᄂᆞ이다 월

낭을 지나 영설헌의 니ᄅᆞ러 보니 한 부인이 그 곳
의 안ᄌᆞᆺ고 차환이 겻ᄒᆡ셔 부ᄎᆡ질ᄒᆞ다가 머리를
드러 보ᄆᆡ 미ᄒᆡ 우ᄉᆞ며 니ᄅᆞᄃᆡ 부인아 ᄆᆡᆼ 부인이 오셔
노이다 ᄒᆞᆯ련 망히 ᄀᆡ션ᄒᆞ거ᄂᆞᆯ 만부인이 례ᄅᆞᆯ 보
ᄌᆞ 즁셔 분좌ᄒᆞ더니 한부인이 니ᄅᆞᄃᆡ 노부인아 ᄌᆞ녀 열
은 엇지 ᄒᆞ여 이ᄀᆞᆺ치 심히 더우뇨 ᄆᆡᆼ부인이 니ᄅᆞᄃᆡ
졍히 올흐니 ᄌᆞ녀 일은 작일의 비ᄒᆞ여 더욱 더운 듯
ᄒᆞ도다 한부인이 니ᄅᆞᄃᆡ 노부인아 나ᄂᆞᆫ 보건ᄃᆡ 녜증
일번만 ᄒᆞᆯ 거시 이 엇ᄂᆞᆫ지라 졈이 젼일보다 허여

려번 권ᄒᆞ여 ᄀᆞᆼ쥭을 너그러이 먹을 ᄯᅢ 활이 지ᄂᆡ
라 ᄒᆞ되 노부인은 다만 즁즁ᄒᆞᆫ ᄯᆞᆯ ᄀᆞ티 답ᄒᆞᆯ ᄯᆞᄅᆞᆷ 경근
심이 ᄯᅩᆨ질 셔가 업ᄂᆞ니 만일 노부인이 근심을 과
히 ᄒᆞ다가 ᄭᅮᆷ이 ᄎᆞᆷ상ᄒᆞ면 엇지 려ᄒᆞᄂᆞ뇨 ᄆᆡᆼ부인이
니ᄅᆞ되 이야 부인아 너의 ᄀᆞᄅᆞ친 뜻을 ᄭᆡ쟈 ᄒᆞ거니와
다만 노신이 ᄎᆞᆯᄭᅮᆫ ᄒᆞᆫ 우ᄅᆞᆨ ᄋᆞᄅᆞᆯ ᄒᆞᆯ 져 ᄒᆞ미 어
놀 만일 ᄆᆡᆼ경의 얼굴을 보지 못ᄒᆞ면 결단코 잔
명을 보젼치 못ᄒᆞᆯ지라 부인을 만나 ᄒᆞᆷᄭᅴ 이 곳
의 왓시나 엇지 얼굴 ᄒᆞᆫ ᄀᆞᄅᆞ나 망셔 ᄒᆞ리오 권희

ᄒᆞᆫ 꿈을 어더시니 거역지 못ᄒᆞᆯ 거시로ᄃᆡ 다만 ᄯᅩ
가히 우ᄅᆞᆯ 싱각ᄒᆞ면 ᄭᅮᆷ이 신산ᄒᆞ도다 ᄒᆞᆫ 부인
이 니ᄅᆞ되 이날 텬셩의셔 ᄎᆞᄌᆞ 날 졍이라 ᄒᆞᆯ
부인을 이 ᄒᆡ여 기지 못ᄒᆞᆯ 거시로ᄃᆡ 다만 ᄌᆞ연
연ᄒᆡ 텬의 원힝기여 려옵여 ᄒᆞᆺ신 ᄒᆞᆨ셔 늘 ᄒᆞᆯ 셰ᄅᆞᆯ
기다려 쳡이 부인을 보니여 양양을 가셔 ᄌᆞ손
싱 봉계 ᄒᆞ리라 ᄒᆞᆼ 부인이 니ᄅᆞ되 아희 날도 ᄒᆞ여
ᄌᆞ손 졀을 기다려 긔선께 ᄒᆞᆯ진ᄃᆡ 이ᄅᆞᆯ ᄌᆞᆨ게 ᄒᆞ
미 아니냐 ᄒᆞᆫ 부인이 니ᄅᆞᄃᆡ 부인이 엇이 ᄀᆞᆺ치 ᄒᆞ

시ᄂᆞ냐 녕낭이 잇ᄯᅵ의 진부의 ᄭᅮᆷ서면 당정코 만ᄒᆞ
치 아닐너니 엇ᄇᆞᆯ 즈연 그곳의 평안히 이셜거서 어
날 부인은 ᄭᅳᆫ 즉셜 ᄀᆞ이ᄀᆞᆺ치 착금ᄒᆞ시니 ᄌᆞᄒᆞ여
의 니ᄅᆞ되 ᄭᅮᆷ을 어그럽게 ᄯᅥᆨ으면 일을 일울다
ᄒᆞ니 그ᄃᆞᆨ 여인을 치 말나 ᄒᆞᆼ 부인이 니ᄅᆞ되 부인
의 셩의ᄅᆞᆯ 엇어 이ᄀᆞᆺ치 권외ᄒᆞ시나 다만 노진은
낭ᄌᆞ의 ᄭᅮᆷ의 날리 잇서 ᄌᆞᆼᄌᆞᆼ을 ᄂᆞ라 앙앙 진부
ᄅᆞᄀᆞ지 못ᄒᆞᆯ 한 ᄒᆞᄂᆞᆫ지라 허다 ᄉᆞ세ᄅᆞᆯ ᄌᆞ계치
아니코 즈직의 ᄭᅩ진 상봉ᄒᆞᆯ ᄒᆞᄂᆞ니 일서 일직을

쟉ᄒᆞᆯ 기다리기 어렵거ᄂᆞᆯ 엇지 능히 추ᄒᆞᆼᄋᆞ 기ᄅᆞᆯ
기다리리오 한 부인이 나ᄅᆞᆯ 위ᄒᆞ여 부인이 이갓치
말ᄉᆞᆷᄒᆞ실 진ᄎᆡ 쳡으로 쟉ᄒᆞᆯ 강잉ᄒᆞ여 만ᄅᆞ기 어려
우니 ᄎᆞᄅᆞᆯ 칭ᄒᆞᆯ 길일을 갈희여 니 친히 부인
을 ᄭᅬ셔 가미 믈ᄒᆞ리라 ᄆᆞᆼ 부인이 니ᄅᆞ되 이야 만
일 부인이 나ᄅᆞᆯ 다리고 가셔다 ᄆᆞᆯᄒᆞᆯ 진ᄎᆡ 이ᄂᆞᆯ 갓가히
당치 ᄭᅩᆺᄒᆞᆯ 서시로 겸ᄒᆞ여 노신이 ᄎᆞᄅᆞᆯ 곤ᄒᆞ미 엿의
익어셔 니구ᄅᆞ여 ᄎᆞ롱일을 갈희여셔 시 업ᄃᆞᆯ 귀쳥
명ᄒᆞᆯ 현귀의 졍히 빨 힝기 ᄭᅳᆫᄒᆞ니 이 편의 가셔

만일 능히 우ᄅᆞᆯ 보면 ᄭᅩᆺ낭인이 ᄯᅢ은을 갑격히
너기리라 한 부인이 니ᄅᆞ되 부인의 말이 너모 즁
ᄒᆞ도다 ᄒᆞ며 서ᄅᆞ 즁의 ᄉᆡᆼ각ᄒᆞ되 다시만 ᄎᆞᄒᆞ면도
ᄎᆞ형 여우 졍ᄒᆞ미라 ᄒᆞᆯ ᄶᅡᆨ 니ᄅᆞ되 부인이 엿의가
우ᄉᆞᆯᄒᆞᆯ 진ᄎᆡ 쳡으로 쟉ᄒᆞᆯ 갑히 만ᄎᆞ 치ᄭᅩᆺᄒᆞ오라 ᄆᆞᆼ
부인이 니ᄅᆞ되 부인을 다샤ᄒᆞ오라 한 부인이 차환
을 불너 니ᄅᆞ되 엿ᄂᆞᆫ 나ᄅᆞᆯ 위ᄒᆞ여 한 ᄎᆞᆼ을 블ᄅᆞᆯ
일ᄅᆞ면 오ᄅᆞᆯ ᄎᆞ ᄆᆞᆼ의 분부ᄒᆞ여 ᄎᆞ연을 ᄌᆞᄇᆡ케ᄒᆞ
라 ᄆᆞᆼ 부인이 니ᄅᆞ되 부인은 구ᄒᆞ여 ᄭᅩᆺᄋᆞᆷ을 허비치

말나 한부인이 니ᄅᆞ되 막ᄎᆞ이ᄅᆞᆫ 뎨ᄅᆞᆯ 부인이 ᄉᆡᆼᄀᆞᆨ
히 ᄀᆞᆯ어시 엄ᄌᆞ나 방부인이 니ᄅᆞ되 다만 ᄉᆡᆨ히 당치
못ᄒᆞᆫ니 ᄌᆞ션이가 히 부담ᄒᆞᆯ길이 엄ᄌᆞ나 챠한
이ᄌᆞ인의 명을 밧드러 끈져ᄌᆞ 방의가 져 분부
ᄅᆞᆯ 전ᄒᆞ되 셜니ᄌᆞ연을 졍미ᄒᆞ라ᄒᆞᆯ 끗을 드
르허 ᄉᆞ족의 뎐의가 져 한ᄅᆞᆼ을 부ᄅᆞ니 한ᄅᆞᆼ이 급ᄒᆞ
히 자한을 ᄎᆡ라 내간의 니ᄅᆞ러 한부인 앎히 셔ᄒᆞ
니ᄅᆞ되 부인이 ᄌᆞ인을 부ᄅᆞ시ᄂᆞᆫ 곳을 분부ᄒᆞ셜일이
잇ᄂᆞ니 어ᄉᆞ가 한부인이 니ᄅᆞ되 너ᄂᆞᆫ 젼젹을 ᄌᆞᆫ미ᄒᆞ

여ᄌᆞ긔 일의 방부인을 조종ᄒᆞ여 앙ᄒᆞ 진어ᄉᆞ 부ᄅᆞᆼ
을ᄅᆞ가 셔게 ᄒᆞ되 ᄌᆞ셔ᄒᆞᆯ지 뎨치 말나 ᄌᆞ라 오면 ᄉᆡᆼ
이여서라 ᄒᆞ라 한ᄅᆞᆼ이 담은ᄒᆞᆫ가 거ᄌᆞᆯ 한부인이
떠ᄉᆞ 벌의 ᄉᆡᆼ각 ᄌᆞ석 거ᄅᆞᆯ다 일ᄂᆡ 목ᄋᆞᆷ의와 셥랑
ᄅᆞᆼ 황ᄌᆞ을 ᄌᆞᆨ습ᄒᆞ여 방부인을 ᄌᆞ며 니ᄅᆞ되 비
ᄌᆞᆨ 뎐의 여ᄋᆞ열ᄒᆞ나 형니ᄅᆞᆯ 끄ᄅᆞ이 ᄀᆞᆺᄒᆞ리라
ᄒᆞ니 방부인이 각한 ᄎᆞ샤 ᄒᆞ거ᄌᆞᆯ 한부인이 한ᄅᆞᆼ
을 불러 분부ᄒᆞ여 일ᄌᆞᆨ히 졔거ᄒᆞ여 션ᄉᆡᆼ을 옮겨가
게 ᄒᆞ더니 맛ᄎᆞᆷ ᄌᆞ연을 ᄋᆞᆺ의 버려서 ᄃᆡ 간연히

ᄒᆞᆫ진 찬이 아름다오며 ᄌᆞᆫ셔의 광위부인이 앗ᄀᆞ
끼 차환을 ᄒᆞ여곰 ᄎᆞᆯ을 칠셔 한부인이 니ᄅᆞ되
블라 ᄆᆞᆨᄒᆞᆫ산쳐례ᄅᆞᆯ 일우지 못ᄒᆞ여서 나 부인
은 끄륵ᄒᆞᆷ이 싱ᄎᆞᆨ히 구지 말ᄅᆞᆯ 예간하져 ᄒᆞ라 망부
인이 니ᄅᆞ되 부인을 다샤ᄒᆞᄂᆞ니 노친이 지부의 잇셔
간ᄅᆡ ᄒᆞᆫ을 닙어 거ᄅᆞᆯ 이졔니 떨골ᄒᆞᆫ 원ᄅᆡ나
의고롯ᄒᆞ미나 각격ᄒᆞ온 맛ᄎᆞᆷ시 간례의 쌱이ᄂᆞ
니 다만 원컨ᄃᆡ 상현이 ᄒᆞᆷ샤 나의 희ᄅᆡ ᄒᆞᆼ농ᄒᆞ
ᄂᆞᆯ이 이서면 맛당히 각궁ᄒᆞᆯ 덕을 보답ᄒᆞ리

라 한부인이 니ᄅᆞ되 부인은 엇지 이런 말을 ᄂᆡ시ᄂᆞ
뇨 ᄌᆞ고로 처첩을 ᄒᆞ여곰 지위ᄒᆞ여 환궁케 ᄒᆞᄂᆞᆫ다
존례ᄅᆞᆯ 셜만이 ᄒᆞ여 이ᄃᆡ의 며느ᄅᆞ시게 ᄒᆞᆯ 셧쳐
ᄒᆞᆨ헌지 ᄌᆞᆨ삭이 못된지라 나ᄂᆞᆫ다만 다시 면날
을 ᄒᆞ야 두ᄅᆞᆨᄒᆞᆷ을 도모ᄒᆞ엿더니 다만 부인이 ᄭᅡ
을 위ᄒᆞ여 ᄌᆞᆫ곰ᄒᆞ여 일ᄌᆞᆨ을 견ᄒᆞ기 어려워 ᄒᆞ시며 ᄀᆞᆨ
히 만ᄅᆞᆨ지 못ᄒᆞᆯ 분주ᄒᆞ나 처첩의 ᄭᅮ움은 더욱 창
결ᄒᆞ니 다만 원컨ᄃᆡ 션상의 출ᄅᆞᆼ을 만나 오월
ᄂᆞ의 보ᄒᆞᆼᄒᆞ여 주시 양ᄀᆞ ᄒᆞᆫ희 니ᄅᆞ되 ᄒᆞ련ᄒᆞ영ᄂᆞᆼ

을 만나 보라 부인아 만일 영친이 만족ᄒᆞ여 평
안히 양〃의셔 머믈시거든 ᄭᅮᆯ족이 일봉 ᄎᆡ월
을 붓쳐 나의 ᄯᅳᆺ을 위ᄒᆞᆯ ᄒᆞᆯ 젹 곤궁인이 고원
을 ᄎᆞ자 가시거든 쳔만번 부탁ᄒᆞ건ᄃᆡ 지금의나
의 집의 ᄂᆡ 골려 쳡봉을 ᄒᆞ여 ᄯᅡ지 종ᄉᆞ를 보게 ᄒᆞ
며야 만산 쳔ᄅᆞᆯ 몃 날을 메고 ᄃᆞ니다가 ᄎᆞ자 가라 방부
인이 져〃 두 답응ᄒᆞ여 오직이 리로록 ᄌᆞᆯ을 ᄯᅡ시다
가 ᄒᆡᆼ 귀셔〃 ᄒᆞᆨ막ᄒᆞ지라 한부인이 연ᄒᆞ여 ᄂᆞᆫ 끌
을 ᄒᆞᆯ골 너다가 ᄭᅳᆫ두ᄌᆞ 환ᄋᆞ산을 불너 ᄂᆡ골리 ᄒᆞ일

의 방부인이 양〃 집물을 가질지라 ᄂᆡ 한 ᄅᆞᆼ을 평
ᄒᆞ여 션젹을 어더 ᄒᆞᆫ의 가게 ᄒᆞ여 서〃 ᄯᅳᆺ을 ᄒᆞ
여 ᄌᆞ의 ᄉᆞ실 가게 ᄒᆞᄂᆞᆫ 싱각 견ᄃᆡ 어늘 다ᄅᆞᆫ ᄃᆡ 〃
의 ᄃᆡ ᄒᆞ여 져기 영ᄂᆡ ᄒᆞ거니와 ᄭᅩ름죡이 ᄯᅥᆺ 절을
죡셔ᄒᆞᆯ ᄌᆞᄒᆡ 복서ᄒᆞ여 가ᄃᆡ 진부의 ᄂᆡ 골거든 지
뎨지 말나 응ᄉᆞ이 답응ᄒᆞ더니 한 ᄅᆞᆼ이 도라와 나
국ᄃᆡ ᄂᆞ의 부인의 명을 ᄯᅡᆺ 드러 ᄯᅩᆷ 절을 고나 〃의
경당히 ᄒᆞᆯ 하ᄂᆞᆯ이 져〃 ᄂᆞᆯ니 쳥ᄒᆞᆫ ᄃᆡ 방부인
은 일ᄌᆞᆨ 등션ᄒᆞ고 셔 한부인이 ᄂᆡ골리 이 것를

진쥬를 드려오라 ᄒᆞᆫᄃᆡ 이 답응ᄒᆞ고 나가니 낭ᄌᆡ
부인이 각각 ᄎᆡ장ᄒᆞ여 편언 만어를 부탁ᄒᆞ며 ᄎᆞᆷ
아니 떠ᄂᆞᆯ지 못ᄒᆞ더니 즁지 평당을 드려오거ᄂᆞᆯ 망
부인이 셔히 즁쥭을 드려가 안ᄌᆞ며 바울을 ᄂᆞ
리니 한부인이 의ᄅᆞᆯ 호쳔을 이긔지 못ᄒᆞ여 쳑연이 여
니ᄅᆞ러 눈물을 ᄲᅳ리며 련ᄒᆞ여 뎐ᄒᆞ여 즁쥬를 ᄭᅴ셔
라ᄒᆞ며 ᄎᆞᆨ셔 한ᄅᆞᆯ 라 응ᄒᆞ여 33을 부인긔 드리니 ᄶᅵᆨ
ᄒᆞ거ᄂᆞᆯ 부인이 선ᄀᆞ 부탁ᄒᆞ니 광인이 옥 답응ᄒᆞᆯ
즁쥬를 ᄶᅡ라 ᄒᆡᆼᄒᆞᆯᄉᆡ 대군의 ᄉᆞ각지 언마 못되여

물ᄉᆡ의 ᄂᆡ조ᄭᅴ 끄ᄂᆞ다 등션ᄒᆞᆯ 션인이 즁동의 독
ᄒᆞᆯ 다ᄂᆞᆯ지라 망부인이 ᄎᆞᆨ셔의 ᄯᅡ야 동ᄅᆞᆯ ᄇᆞᆼ셕ᄒᆞ되
더욱 셩각이 간급ᄒᆞ여 막ᄂᆡ 장텬의 ᄂᆞ라 ᄀᆞᆺ치
가지 못ᄒᆞᆷ을 한ᄒᆞᆫ 한부인은 망부인을 젼송ᄒᆞᆯ
ᄒᆞᆷ의 즁당을 드러와 셔ᄒᆡ 쳐쟉ᄒᆞ여 눈물을
ᄲᅳ리며 다만 져의 ᄭᅮᆷ젹 셔글 맛ᄂᆞ 흥의 향을 가
물ᄒᆞ족 ᄒᆞ니 ᄎᆞᆫ ᄒᆞᆫ 즁즁ᄅᆞᆯ 일ᄒᆞ여 ᄒᆞ셔든 차강히 회
복히 ᄒᆞ라

ᄌᆞᆨᄌᆞᆨ ᄌᆞᆨ인을 ᄯᅥ 물미라

진부가인진션이븐ᄎᆡ하낫만부의셔ᄉᆞ한ᄒᆞ다
가혹후부인이앙의우러ᄒᆞᆯ셰의ᄯᅡ라온지낫
인의이십여년이되여살기ᄒᆞ의한번국인을ᄯᅡ라
하낫을와셔지령ᄒᆞᆯ국라갓서나ᄂᆞ노애전션
의외인이정직ᄒᆞᆫ벼ᄉᆞ의관리ᄒᆞᆫ글그릇ᄒᆞ미엽
ᄉᆞ끌선낫ᄒᆞ여ᄒᆞᆼ찰ᄒᆞᆫ가인을ᄉᆞᆫ별ᄂᆞ이시
접ᄒᆞ니혹가ᄋᆞᆼ인이ᄭᅳ나증경ᄒᆞ여중ᄭᅳ와내간
차한이쑥ᄂᆞᆫ일이이서면ᄭᅳ나진션의게와셔ᄭᅳᆺ
ᄂᆞ진션이하라ᄒᆞᆫ글ᄎᆡ져의등이즐ᄂᆞᆫ리ᄃᆞ만진

션이쟈구ᄒᆞᆫ편국인의말과일양을어니쓰ᄒᆞᆯ
신낫히톄면이이서나ᄅᆞᆯ허십분증근ᄒᆞ여다른
것낫을듯지어나젼일의노애멋분봉우ᄅᆞᆯ건보
려명산의가셔리셔ᄒᆞᆯ시국연일졀ᄉᆞ무ᄅᆞᆯ끄
나진션을ᄒᆞ여금옥리게ᄒᆞᆯ지라진션이끄
든일을ᄒᆞᆯᄂᆞ졍겁ᄒᆞ며군부ᄅᆞᆯ명ᄇᆡᆨ히의록
ᄒᆞᆫ아못ᄅᆞᆯᄒᆞᆫ착이업셰ᄒᆞ셔쥭일을븐줄ᄒᆞ
여집의로라갈듯이업더니일일은져거공한
ᄒᆞᆯ지라ᄂᆞᆫᄅᆞᆯ성각ᄒᆞ리금일은가ᄅᆞᆼ의로라가

노라ᄅᆞᆯ 보리라 ᄒᆞ고 여러 가인 등의게 부탁ᄒᆞ여 망
죵히 ᄂᆞᆯ거나 혹 잡히어 들네지 말나 ᄒᆞ니 가인
등이 ᄭᆞ다 옷 답응ᄒᆞ거ᄂᆞᆯ 진션이 ᄃᆞᆨ의 ᄒᆞ여 ᄯᅢ
끈을 ᄭᆞᆯ나 오ᄭᅴ 혹 셔의 ᄎᆡ양이 ᄭᅳᆺ의 ᄆᆡᆺ치여 길
노 힝기 어려온지라 ᄯᅡ 츌션을 얼골을 가릴
흥、히 힝ᄒᆞ니라 각셜 ᄎᆞ셔의 한 롱이 망부인
을 ᄭᅴ시ᄅᆞ 잇의 잉、ᄭᅳᆯ소의 ᄂᆞ려 체 ᄭᅳᆺ쳐 언덕
의 올나 서ᄅᆞᆫ을 ᄯᅡ 나면 길을 분명히 ᄀᆞ리거의
힝 셔ᄀᆞ 가라 ᄒᆞᄂᆞᆫ 거리의 ᄂᆞ려 졍히 진션을 만

나 ᄀᆞᄅᆞ치 ᄎᆞᄌᆞ가ᄂᆞᆯ 한 말을 ᄭᅳᆯ려 ᄒᆞ노라 진션이 ᄂᆞ
ᄅᆞ치 ᄎᆞ거ᄂᆞᆯ ᄭᅳ어ᄅᆞᆯ ᄭᅳᆯ려 ᄒᆞ노 한 롱이 ᄂᆞᄅᆞ티 진
어ᄉᆞ 부롱을 졍히 이 곳을 줄ᄎᆞ 가ᄂᆞ냐 진션이
ᄂᆞᄅᆞ티 졍、히 울거ᄂᆞ와 너를 ᄀᆞ려 ᄭᅳ어、ᄒᆞ려 ᄒᆞᄂᆞ
노 한 롱이 ᄂᆞᄅᆞ티 ᄎᆞᄌᆞ가ᄂᆞᆯ ᄎᆞ ᄀᆞ강부한 ᄐᆡ야 부롱
의 셔온 실ᄒᆞᆫ이 ᄂᆞ 진노야ᄅᆞᆯ 핍오려 ᄒᆞ노라 진션
이 ᄂᆞᄅᆞ티 ᄭᅳᆯ ᄉᆞ졍이 잇ᄂᆞ노 한 롱이 ᄂᆞᄅᆞ티 우리
집 ᄀᆞᆨ ᄭᅳ의 명을 ᄆᆞᆺ두러 망부인을 ᄭᅴ시ᄅᆞ 이 곳
의 와ᄀᆞ라 진션이 ᄂᆞᄅᆞ티 어ᄉᆡ 곳의 엇던 망부

인이시노 한룡이 니ᄅᆞ되 하ᄂᆞᆯ 망생국부룡부
인이시니라 진션이 니ᄅᆞ되 아직 셔〻히 ᄒᆡᆼᄒᆞ라
한룡이 니ᄅᆞ되 ᄇᆡᆨ〻은 구어 줄 ᄒᆞ려 ᄒᆞᄂᆞ뇨 진션이
니ᄅᆞ되 노한이 구ᄅᆞᆯ 말이 잇ᄂᆞ니 만부인이 하ᄂᆞᆯ
의계시거ᄂᆞᆯ 어지 ᄒᆞ여 셜 한부의 계시ᄂᆞ뇨 한룡
이 니ᄅᆞ되 ᄇᆡᆨ〻아 녀ᄌᆞ 얼굴을 구려 구어〻 ᄒᆞᄂᆞ뇨 진
션이 니ᄅᆞ되 노한은 ᄃᆞᆺ 진부룡 홍간 강이라 니
러ᄅᆞᆯ 명ᄇᆡᆨ히 ᄀᆞᆺ노라 한룡이 니ᄅᆞ되 ᄇᆡᆨ〻 이 ᄃᆞᆺ
진룡 간이 실진 되 ᄉᆞᆺ 실례 ᄒᆞ여ᄂᆞ노라 진션이
니ᄅᆞ되 ᄀᆞᆺ 희상 치ᄀᆞᆺ ᄒᆞ거니와 이ᄃᆞᆺ은 장ᄃᆡ 셜화
ᄒᆞᆯ 져ᄭᅴ 아니니 이 셤의 가셔 안즈 ᄂᆞᆯ 화 ᄒᆞ리라
한룡이 니ᄅᆞ되 지블어니 ᄃᆞᆺ이 ᄌᆞ 진션이 니ᄅᆞ되 ᄃᆞᆺ
져편의 어시니 노한이 길을 인도 ᄒᆞ리라 한룡이
진션을 ᄯᆞ라 ᄒᆡᆼᄒᆞ더니 언마 ᄀᆞᆺ ᄒᆡᆼ ᄒᆞ여 진션
이 머믈어 셔며 니ᄅᆞ되 이 ᄃᆞᆺ이 ᄃᆞᆺ니 집이ᄅᆞ라 ᄒᆞ
고 문을 두ᄃᆞ려 니ᄅᆞ되 마〻야 문을 열ᄅᆞ니 진노ᄒᆞ니
와 문을 열거ᄂᆞᆯ 진션이 두려가 며니ᄅᆞ되 니 집
이 불라 두어 간 되더 ᄉᆞ거ᄂᆞᆯ 여 간의 ᄃᆞ려와 안즈라

한룡이 ᄒᆞᆷ긔 망룡의 드러가 례ᄅᆞᆯ 보ᄂᆡ 비록 쳔
인의 집이나 ᄯᅩᄒᆞᆫ 례졀이 이슬지라 누파로 ᄒᆞ여금
차ᄅᆞᆯ 달히라 ᄒᆞᆯ ᄂᆡᆼ인이 셔ᄅᆞᆯ 안고 ᄭᅮᆯ 쳥ᄒᆞᆯ 각
기명ᄒᆞᄅᆞᆯ ᄭᅮᆯ ᄯᅥ진 쳔이 망부인의 리력을 ᄀᆞᆺ
초ᄒᆞ거ᄂᆞᆯ 한룡이 나ᄅᆞ러 ᄇᆡᆨ을 아지 ᄭᅳᆺᄒᆞ리라 옥
리십 죡ᄭᅴ 노야의 의ᄉᆞᄅᆞᆯ 굴츠 고라 오시다가 강샹
의셔 눈을 만나 ᄎᆞᆨ일을 범ᄒᆞ며 ᄭᅳᆯ 쳥명ᄒᆞᆨ
기ᄅᆞᆯ 기다리ᄂᆞ니 ᄯᅥᆯ은 죡ᄭᅴ 챵을 의지ᄒᆞ고 셜경
라 강샹을 구경ᄒᆞ시더니 강변일 좌 뎡ᄌᆞ 흑의

ᄇᆡᆨ두 노부인이 울거ᄂᆞᆯ 죡ᄭᅴ 사ᄅᆞᆷ을 보ᄂᆡ여 영졉
ᄒᆞ여 션룡의 니ᄅᆞ은 후의 근본ᄅᆞᆯ 자셰히 무러 알
ᄆᆡ 초 망샹국 부룡 부인이 ᄃᆞᆫ션을 이ᄅᆞ진 부ᄅᆞᆯ
와 증쟈ᄅᆞᆯ ᄎᆞᆺ려 ᄒᆞ더 졍히 눈을 만나 노샹의
셔 졀ᄒᆞ시ᄂᆞᆫ지라 우리 집 죡ᄭᅴ 근명 부ᄅᆞᆯ 황
을 당ᄒᆞ실 ᄎᆞᆨ은 이 너져 간졀이 만족ᄒᆞ여 ᄒᆞᆷ긔
현죡가 룡의 니ᄅᆞ러며 ᄭᅳ시더니 망부인이 룡일
눈ᄭᅳᆯ을 흘니며 민울ᄒᆞ시ᄂᆞᆫ지라 이러므로 우리
죡ᄭᅴ ᄒᆞ가와 ᄃᆞᆺ긋 응ᄉᆞ시여ᄅᆞᆯ 평ᄒᆞ여 망부인을

긔실이 ᄀᆞᆺ의와ᄉᆞ더니 맛ᄎᆞᆷ 릭、을 맛나시니 바라
건ᄃᆡ 진ᄂᆞ야 거ᄅᆞᆯ ᄒᆞ여 아ᄅᆞ시게 ᄒᆞ려니와 망ᄌᆞᆼ
국ᄅᆞᆯ 쳥ᄒᆞ여 ᄌᆞ변의 ᄉᆞ가 부인을 영졉ᄒᆞ여
곡ᄌᆡ 셔ᄅᆞᆯ 분실민을 ᄒᆞ시미 엽게 ᄒᆞ라 진션이 이
말을 듯ᄌᆞ ᄂᆞᆯ ᄉᆡᆼ각ᄒᆞ리 이ᄅᆞᆯ 엇지 ᄒᆞ리오 ᄒᆞ며
졍히 ᄌᆞ견을 뎡치 못ᄒᆞ더니 진ᄂᆞ리 차ᄅᆞᆯ 가지고
와ᄂᆞ니 가 분명히 듯ᄂᆞ니ᄅᆞᆯ 리ᄂᆞ야 근일의 ᄂᆞ애 ᄒᆞ셔
ᄒᆞ여 다른 ᄃᆡ 만 을가 실 여니 알조 과 오실 지ᄭᆡ
국니 만일 부인의게 ᄅᆞᆯ ᄒᆞ여 아ᄅᆞ시게 ᄒᆞ면 쳥졍

이럴리 어그렵지 못ᄒᆞ신지라 만ᄃᆞ시 쳔일 ᄭᆞᆼᄀᆞᆺ
치셔ᄅᆞᆯ 화합지 못ᄒᆞ실 ᄃᆞᆺ ᄒᆞᄂᆞ다 쳔션이 니ᄅᆞᆯ 리어
ᄌᆞ둔 ᄭᆞᆯ 인ᄒᆞ여 ᄌᆞ져 미졀ᄒᆞᄂᆞ라 진노ᄒᆞ니 ᄅᆞᆯ 리ᄂᆞᆫ
셔ᄒᆡ 치 말나 내 일 ᄌᆞ쳔이 엇ᄂᆞ라 진션이 니ᄅᆞᆯ
리마 늘 ᄭᆞᆯ의 쳔이 이ᄀᆞ ᄌᆞ진노 ᄅᆞᆯ 니ᄅᆞᆯ 리다 만복
인을 영졉ᄒᆞ여 우리 가즁의 니ᄅᆞᆯ 리 ᄯᅥᆺ날을 며
ᄀᆞᆯ이게 ᄒᆞᄂᆞ 가ᄂᆞ애 부ᄌᆞᆼ의 ᄌᆞ라 오시ᄭᅳᆯ 거다 려즁
봉히 ᄅᆞᆯ ᄒᆞ면 ᄌᆞ연 부인을 안돈ᄒᆞ여 머ᄀᆞᄅᆞᆯ 세ᄒᆞᆯ
거셔 오ᄌᆞ편 일어 ᄭᅳ다 편ᄒᆞ리라 진션이 듯ᄌᆞ 졀

두ᄒᆞ며 너희 마、의 말이 올흐나 진노ᄒᆞ되 너희
어지고로 말을 ᄒᆞ리오 쳘녀가 셔부인을 영졉ᄒᆞ
여우셔게 ᄒᆞᆯ구ᄒᆞ여 셜ᄌᆞᆼ의 ᄒᆞ여치 말나 진션이
너희 이것을 진졍 어ᄂᆞᆯ 가ᄌᆞᆼ의 탁ᄌᆞ와 ᄌᆞ의ᄅᆞᆯ ᄎᆞᆨ
흡ᄒᆞ리라 진노ᄒᆞ되 너희 이리ᄒᆞ시니 어ᄂᆞᆯ가 ᄒᆞ라 진한 ᄅᆞᆼ
부가인이 차ᄅᆞᆯ 마신 후의 흥、히 ᄌᆞᆨᄅᆞᆯ 예비ᄒᆞ여
가지고 강변의 가셔 ᄆᆡᆼ부인을 영졉ᄒᆞᆯ새 진션
이 등션ᄒᆞ여 ᄌᆞᆨ고ᄅᆞᆯ 블너 너희 부인은 누구의
몸고ᄅᆞᆯ 나져 계시니 이ᄀᆞ가 ᄆᆡᆼ부인이 너희 ᄯᆞᆯ기

노진션이 너희 ᄌᆞ인은 곳 진션이어ᄂᆞᆯ 부인이야
지ᄭᅳᆺᄒᆞ시ᄂᆞ니 이ᄀᆞ가 ᄆᆡᆼ부인이 너희 외야 진션아
너ᄅᆞᆯ 여러 히 만의 ᄌᆡ 일 보시롤 ᄭᆡ져 일ᄌᆞ지야
니고ᄌᆞᆨ 발이 여ᄒᆡ의 히 여시며 형용이 셔ᄒᆡ히 ᄇᆞᆼ즁
ᄒᆞ오나 진션이 너희 졍히 올흐오나 노ᄒᆞᆫ 다만
셔ᄌᆞᆼ의 ᄌᆞ셔ᄒᆡ이 만ᄉᆞ를 인ᄒᆞ여 ᄯᅥᆯ노이 일ᄌᆞᆨ 죄
ᄒᆞᆯ지라 비록 ᄭᅮ인이 ᄆᆡᆼ、의 이셔나 한가ᄒᆞ면 홍
ᄉᆡᆼ샹부 현을 ᄉᆡᆼ각、ᄒᆞ니 혜졍 부인이 ᄭᅮᆷ면
이ᄌᆞ의 우셔븐 각룸이 어니라 단졍코 ᄌᆞᄒᆞᆯ 대샹

긍을 ᄎᆞᆷ려 ᄒᆞ시미니이다 맹부인이 니ᄅᆞ되 쳥
히 올ᄒᆞ니 ᄯᅢ 상공이 지금 어ᄯᅢ 잇ᄂᆞ뇨 진션이 니
ᄅᆞ되 부인은 요쳥 컨ᄃᆡ ᄌᆞᆷ간의 오ᄅᆞ쇼셔 ᄃᆡ상공이
즉시 오시리이다 ᄒᆞ니 이날 진션이 ᄯᅩᄒᆞᆫ 맹공긔 이
ᄀᆞᆺ치 엽단 말을 드ᄅᆞ면 진노ᄒᆞᆯ가 두려 이러 ᄭᅳᆯ
낭ᄌᆞ의 ᄇᆞᆰ히 말ᄒᆞ미 어니와 맹부인이 여지일니
오니 만 셩각ᄒᆞ되 이즁셩 이그ᄅᆞᆺ 경ᄉᆞᄅᆞᆯ 니러도다
ᄭᅩ친이 ᄌᆞᄅᆞᆯ 쳐나 친히 맛거ᄂᆞᆯ 졀경ᄒᆞ면의
마려 드ᄅᆞ면 니ᄉᆞ와 영졉지 아니ᄒᆞ니 이날 인ᄀᆞ지

되여니라 ᄌᆞᄅᆞᆯ 쳐 노ᄉᆞ인 만 ᄭᅳᆺᄒᆞᄂᆞ나 ᄒᆞᆯ 진션을 불
너 니ᄅᆞ되 ᄃᆡ상공이 어ᄃᆡ뇨 진션이 니ᄅᆞ되 잇ᄂᆞ이
다 맹부인이 니ᄅᆞ되 네가 이ᄀᆞᆺ의 오ᄅᆞᆯ 졔 쳥ᄒᆞ얏ᄂᆞ냐
진션이 니ᄅᆞ되 이날 ᄃᆡ상공이 아지 못ᄒᆞ시니 쳥컨
ᄃᆡ 부인은 ᄌᆞᆷ간의 올으쇼셔 ᄒᆞ며 ᄭᅩ호히 ᄃᆡ답ᄒᆞ니
맹부인이 진션을 옷셧ᄒᆞ여 보며 비록 셤졍의
심히 의려ᄒᆞ나 다만 져의 평일 힝ᄉᆡ 가장 노셩ᄒᆞᆫ
글 미심 ᄒᆞᆯ ᄭᅳᆺ치 아니ᄒᆞ니 응당이 맹부인을 붓드
러 ᄌᆞᄅᆞᆷ의 오ᄅᆞ게 ᄒᆞᆯ 진션이 후면의 ᄉᆞ라 힝ᄒᆞ

며 한ᄅᆞᆷ은 션ᄉᆡᆼ의 ᄌᆞᆸ을 ᄋᆞᆯ옮기니 진노ᄒᆞ야
의궁의ᄂᆞ와 다만 부인 모시ᄆᆞᆯ 기다리더니 오ᄅᆡ지아
나 일위ᄉᆞ져오며 진션이 ᄯᅡ르다가 ᄭᅮ져 ᄭᅳᆫ젼의
니ᄅᆞ러 몃ᄎᆞ어 셔더니 ᄭᅮ져 ᄭᅳᆫ젼의 니ᄅᆞ러 며ᄂᆞᆯ
거ᄅᆞᆯ 진노ᄒᆞ야 ᄀᆞᆸᄒᆞᆫᄀᆞᆯ와 마불을 돌ᄂᆞᆫ ᄭᅳᆯ이 왕、
ᄒᆞ며 니ᄅᆞ되 부인아 진노ᄒᆞ날 부인을 영졉ᄒᆞᄂᆞ이
다 망부인이 니ᄅᆞ되 녀ᄅᆞᆯ 가샤 ᄒᆞ노라 ᄒᆞ며 ᄌᆞᄅᆞᆯ
셔ᄂᆞ오 거ᄅᆞᆯ 진노ᄒᆞ 못 드려 셔간을 드려가며 한 놈
은 ᄉᆡᆼᄌᆞ와 ᄌᆞᆸᄭᅳᆯ을 쳥검ᄒᆞ여 얼、히 쳔장ᄒᆞᆯ 션

죵을 ᄌᆞ라 가거ᄂᆞᆯ 망부인이 셔간을 드려가ᄂᆞᆫ을
드려 ᄀᆞ세히 보ᄆᆡ 쳥히 진부ᄋᆞᆼ ᄀᆞᆺ지 아닌지라도
ᄀᆞ혀 연우ᄅᆞᆯ 힐문ᄎᆞ져 ᄒᆞ여 니ᄅᆞ되 진션아 이ᄀᆞᆺ
은 어ᄂᆡ ᄀᆞ이뇨 진션이 니ᄅᆞ되 이날 노ᄋᆞ의 가죵이니
부인은 쳥권ᄒᆞ여 모ᄅᆞᆯ ᄎᆞ셔 노ᄋᆞ의 부ᄎᆡᄅᆞᆯ 드ᄒᆞᄂᆞ이다
망부인이 니ᄅᆞ되 연야 노인네야 ᄀᆞᆫ만 드라 진션이
니ᄅᆞ되 부인은 쳥권ᄒᆞ여 안ᄌᆞ ᄎᆞ셔 망부인이 앙ᄌᆞ 진노
라 ᄅᆞᆯ 보ᄆᆡ 응ᄭᅴ ᄋᆡᆨᄒᆞᆯ ᄎᆞᆯ 최ᄒᆞᆯ 드ᄆᆞᆯ이 희며 등에
ᄀᆞᆸ어 당연 ᄀᆞᆺ지 아니ᄒᆞ더라 망부인이 세、히 ᄒᆞᆼ

죽을 말ᄒᆞ매 부부ᄋᆡᆼ인이 편ᄒᆞ여 나누ᄒᆞᆫ다가 진
선이 니ᄅᆞ러 부인아 내 분명히 말ᄒᆞ리니 누ᄅᆞᆯ
이히 너기지 말고 셔방 부인이 니ᄅᆞ러 ᄭᅬ여ᄅᆞᆯ 이
히여 기러 오진 선이 니ᄅᆞ러 부인이 대상 중이 ᄌᆞᆨ년
십일월 십오일의 어즈의 니ᄅᆞ시ᄯᅥ 블션 블ᄒᆞ리
졍히 ᄂᆞ야의 셩션이 된지라 다만 대상 중의 의ᄉᆡᆨ
이아 다ᄭᅴ지 ᄭᅩᆺᄒᆞᆫ 풀ᄒᆞᆫ인 ᄒᆞ여 노애 끄드러 인이 ᄒᆞᆯ리
ᄒᆞᆯ가 ᄋᆞᆺ겨 ᄒᆞ여 노로ᄒᆞ여 ᄀᆞᆷ ᄒᆞᆷ의 ᄒᆞ원의 드러
가 ᄭᅳᆷ져 부인긔 뵈옵ᄂᆞᆫ 의복을 ᄆᆡᆺ구와 넙은 ᄒᆞᆨ의

다ᄉᆞᆺ ᄡᅢᆷ 끈을 드리와 셔ᄅᆞᆯ 보게 ᄒᆞ라 ᄒᆞ여 계시니 이
다 만일 부인이 니ᄅᆞ러 ᄭᅮᆷ ᄒᆞᆫ이 져 부의 ᄒᆞ의ᄅᆞᆯ ᄀᆞᆺ초ᄒᆞᆫ
구라 진노ᄒᆞ여 말을 ᄂᆡ어 니ᄅᆞ러 부인아 ᄂᆞᄅᆞᆺ인은 원
컨ᄃᆡ 즐겨 옷지 친을 ᄉᆡᆼ각 ᄒᆞ시ᄃᆡ 다만 부인이 친의ᄅᆞᆯ
ᄉᆡᆼ각지 아니코 져기 대상 즁을 당ᄒᆞ여 ᄒᆞ션지라 이
러ᄆᆞᆯ 대상 즁이 셔ᄅᆞᆯ 죵의 믄고 ᄒᆞ여 작별치 아니
코 ᄭᅬᆺ 끈을 ᄌᆞᆯᄌᆞᆯ ᄀᆞ지니 이다 만일 부인이 니ᄅᆞ러 ᄋᆡᆼ야
부인이 친의ᄅᆞᆯ ᄉᆡᆼ각지 아니ᄒᆞ다 니ᄅᆞ기 어렵도다
진노ᄒᆞ여 니ᄅᆞ러 이ᄀᆞᆺ치 ᄒᆞ여 계시니 이다 진션이 니ᄅᆞ

되마ᄋ야 넘가셔 차ᄅᆞᆯ 달히ᄋᆞ여 져 말을 말나 진
노되 니ᄅᆞ되 저ᄅᆞᆯ 시간의 드러와 알ᄂᆞ라 ᄒᆞᆫ디 니ᄅᆞ되
노진동을 다샤 ᄒᆞᄂᆞ라 진노되 ᄒᆞᆫ 으ᄅᆞᆯ 덥허셔 간
을ᄅᆞᆯ 가더니 ᄯᅡᆼ부인이 ᄯᅡᆼᄉᆞ 진노되의 말을 드ᄅᆞᆯ 때 경
실ᄒᆞᆨ ᄒᆞ여 진션을 블너 니ᄅᆞ되 너의 노되의 말이 올
ᄒᆞᄂᆞ 진션이 니ᄅᆞ되 부인아 ᄆᆞᆯ이 올치 아니미야
니ᄅᆞ되 당일의 부인이 대야의 의복이 ᄭᅩᆺ치 ᄭᅩᆺᄒᆞᆫ 풀
복실 져기 ᄯᅥᆨ 미리 말ᄉᆞᆷ을 ᄒᆞ여 ᄯᅥ 니 대야 날 ᄀᆞᆺ던
니 간 거셜 ᄒᆞᆫ 인물이라 어지미 ᄒᆞ리 이 ᄇᆞᆺ 그러운 물

ᄒᆞᆷ으리오 이런 ᄭᅳᆯ 즉시 가게시나 노애 쳥당의 ᄀᆡᆨ
인이 ᄒᆞᆺ허 진ᄒᆞᆨ의 이일을 드ᄅᆞᆯ 셔ᄒᆞᆫ 누ᄅᆞᆯ 다려갈
구ᄒᆞᆼ 뎡의 ᄯᅡ라가셔 만나 부신ᄒᆞᆨ의 대야ᄅᆞᆯ 간
쳥ᄒᆞᆼ ᄒᆞᆨ여 ᄒᆞᆷ의 가ᄒᆞᆼ을 ᄃᆞ라 가ᄅᆞᆯ ᄒᆞᆨ셔되 다만 대
애 혈셕 간장을 은ᄅᆞᆯ 주어ᄃᆞ 막지 아니코 당ᄀᆞᆨ
의 작별 ᄀᆞᆨ ᄒᆞᆨ거ᄂᆞᆯ 노애 ᄒᆞᆷ아 분ᄌᆞᆨ치 못ᄒᆞ여
당 장의 ᄎᆞᆨ저의 ᄒᆞᆼ신 대ᄉᆞᄅᆞᆯ 뎡 ᄀᆞᆨᄒᆞᆫ ᄒᆞᆨ시ᄂᆞᆫ지라
대애 면 강허 락 ᄒᆞᆯ 구ᄒᆞᆼ 뎡의 셔 셔ᄅᆞᆯ 작별 ᄒᆞᆨ
시더니 노애 부ᄒᆞᆼ의 ᄃᆞ라 와 부인을 더브러 ᄇᆞᆫ

분히셔 굴연힐 ᄒᆞ실 지금가지 화합지 못ᄒᆞ셔
며ᄯᆡ여 가신 후의 죽셔은 즈ᄶᅡᆨ 맥ᄉᆡᆼ 다셔 선일봉
을 진상을 족어 하ᄂᆞᆯ을 보ᄂᆡ여 계셔ᄂᆡ 어지져
의가 ᄭᅩᆺ다 ᄒᆞᆯ 부의ᄂᆞᆯ지어치 ᄒᆞ엿ᄂᆞᆫ니 어가 망북
인이 ᄂᆞᆯ리인야 진셔아 ᄯᆡ야와 진상이 ᄭᅩᆺ다 옷지
안ᄂᆡ ᄒᆞ여시니 가콩의 연옷을 ᄭᅳᆯ리ᄆᆞᆯ다 진셜
이 섬ᄂᆞᆫ 콩의 성각ᄒᆞ리 어지ᄭᅩ다 하ᄂᆞᆯ을 가지아
날ᄂᆡ어셔리 옷다만 두리 건리 콩ᄂᆞᆫ의 단쳥 고블
랑ᄒᆞᆫ 셜ᄂᆞᆫ을 만나 이상ᄒᆞᆫ 변을 당ᄒᆞ미니 어일북

인의 명쳑 맛당히 엇ᄃᆞ미오 셜노애 헛도히 일
장ᄌᆞ은 ᄭᅮᆷ들을 허비ᄒᆞ미ᄅᆞᆯ다 ᄒᆞ려니 망부인이
십분 착급ᄒᆞ여 니ᄅᆞ리인야 ᄌᆞ치 못ᄒᆞᄅᆞ다 이ᄉᆞ
들 진리 필연 면을 당ᄒᆞ미니 나의 허ᄉᆞ의 성ᄉᆞᆯ
안지 못ᄒᆞ리ᄅᆞ다 ᄒᆞ며 분、낙누ᄒᆞ거ᄂᆞᆯ 진노리ᄅᆞᆯ 흔
차ᄅᆞᆯ 가지ᄂᆞ와 나ᄂᆞᆯ리 부인은 ᄎᆞᆯ섬 치마 ᄅᆞᆨ설 셜차
ᄅᆞᆯ ᄀᆞ셔 소셔 방부인이 니ᄅᆞ리 진그라야 ᄂᆡᄂᆞᆯ 성각
거리 망 셔ᄅᆞᆯᄅᆞᆼ의 이ᄋᆞᆯ 각박ᄒᆞᆫ 셜ᄂᆞᆫ이 업ᄉᆞ오ᄂᆞ
조셔ᄒᆞᆯ 큰 죄ᄅᆡ 업더니 다만 이제 가ᄅᆞᆼ이 블ᄒᆡᆼ이

녕낙ᄒᆞ여 ᄌᆞᄌᆞᄒᆞ며 ᄉᆞᆼ승 세ᄅᆞᆯ 마감ᄒᆞᆯ 길이 업ᄉᆞ
믈ᄂᆞ의 ᄒᆡᆼ의 쳔산만수ᄅᆞᆯ 조졔치 아니고 져의
부와 ᄂᆞ 그의게와 셔ᄋᆞᆼ을 ᄎᆡ리고 ᄒᆞ려니 ᄂᆞᄭᅴ
녀ᄭᅧ ᄇᆞᆨ대ᄒᆞ여서 나 나의 ᄒᆡᆼ의 편벽도히 ᄉᆞᄉᆞ로 셩
품을 무려서 나 죄 이 ᄀᆞ지 졔ᄅᆞᆯ ᄋᆞ지 못ᄒᆞ고 어지
학의 드러서 며지 슈어내 ᄌᆞᆺ을 갓지 ᄭᅩᆯ리로다
진션이 니ᄅᆞ되 부인은 이런 말ᄉᆞᆷ을 마ᄅᆞ쇼셔 노뫼
미당히 명심ᄒᆞ여 두로ᄯᅢ이ᄅᆞᆯ ᄎᆞᆺ을ᄌᆞᆸ로라
오서게 ᄒᆞ리니 부인은 아직 이 곳의 편히 계서다가

노야 오라 오셔 ᄭᅳᆯ기다려 다시 거쳐ᄅᆞᆯ 변통케 ᄒᆞᄉᆞ
셔 진노ᄅᆡ 니ᄅᆞ되 노의 말이 올토다 ᄒᆞ니 몃가지
쳔ᄅᆞᆯ ᄉᆞ다가 셕반을 준비케 ᄒᆞ라 부인은 니가을
드러가 ᄌᆞ셔 마ᄅᆞᆷ이 셔늘ᄒᆞ니 어디 방 부인이 니ᄅᆞᆯ
뎌이ᄅᆞᆯ 어지 ᄒᆞ리오 ᄒᆞ며 다만 진노라ᄅᆞᆯ ᄲᆞ라내간
울 드러가 ᄅᆞ 진션은 ᄭᅮᆯ건을 ᄉᆞ셔 가지고 집을노
ᄯᅢ 진노ᄅᆡ ᄅᆡᆼ 읍ᄒᆞ여 셕반을 버린 ᄎᆞ셔 한부
가인다 ᄎᆞ환 다ᄭᅩᆺ 션인 등이 각기 셕반을 먹으
며 방부인은 일봉 글월을 다가 한부인의은

덕을치샤ᄒᆞ셰한룡라ᄋᆞᆫ난이망부인거하
직ᄒᆞᆯ션ᄉᆡᆼ을ᄶᅩ좌ᄭᆡ이ᄎᆞᄎᆞᆷ를일ᄋᆞᆯᄂᆞᆯ을
진의차뎡하희블희ᄒᆞ라